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드려도 된다!

CT, 퓨 리서치의 '미국교인 현장예배 시 안전문제 설문조사결과' 해설 보도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교인들은 마침내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COVID-19 제한 및 백신 면제에 대한 현저한 충

돌에도 불구하고 일반 참석자들은 교회의 재개방 계획에 대체로 동의하고 주사를 맞는지 여부에 대한 교회지도자의 조언을 신뢰한다(Most Americans Feel Safe Going Back to Church, Pew Reports: Plus, regular attendees trust their pastor's vaccine advice more than almost any other source).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가는 사람들은 공중 보건 당국 자만큼 교회의 지도자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조사됐다. 그들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유일한 그룹은 자신의 담당 주치의였다.

퓨 리서치는 "전반적으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미국인들이 주에서 선출된 공무원, 지역에서 선출된 공무원 또는 뉴스미디어에 대해 같은 말을 하는 것보다 백신지침을 제공하는 성직자와 종교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다"고 썼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도자들에게 강단에서나 신도들과의 일대일 대화에서 자원을 공유하거나 주사 접종 결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을 계속 촉구하는 신앙 기반 백신캠페인의 전략을 뒷받침한다.

전체 교단들을 통틀어 미국 교회 신도들은 목회자들이 '백신을 권장하지 않았다'(6%)보다는 '격려했다'(39%)라고 말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들의 목회자들이 어느 쪽이든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흑인 개신교도들은 교회지도자들로부터 백신지지 메시지를 가장 많이 들었다. 약 3분의 2는 그들의 교회가 예방접종을 장려했다고 말한다. 이 문제는



복음주의 개신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적게 나왔는데, 약 4분의 3이 그들의 목회자들이 백신접종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퓨 리서치의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How Thousands of Sermons Addressed the Crises of 2020 Pew analyzes how pastors across traditions preached on COVID-19, the election, and racism) 미국교회의 83%가 작년 설교에서 담임 목회자가 전염병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들었다.

이전 연구는 올해 초 백신이 널리 보급된 이후 흑인 개신교도의 견해와 예방접종률이 백인 복음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었다. "크리스천 앤 백신

(Christians and Vaccine)"의 공동설립자인 커티스 창(Curtis Chang)은 지난 8월 USA투데이에 "흑인 개신교 커뮤니티에서 백신에 대한 망설임만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제 진짜 백인 복음주의 문제다."

초기에 일부 복음주의 목회자들은 백신접종에 대해 논의할지 여부 또는 어떻게 논의해야 할지 의아해했다. 일부는 의학적 결정이 환자와 의사에게 달려있다고 믿고, 다른 일부는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법의 개발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기뻐했다. 보수적인 남침례교 지도자 로버트 제프레스를 비롯한 많은 복음주의 인물들은 계속해서 스스로 백신을 맞고 클리닉을 열

어 예방접종을 홍보했다.

그러나 이 주제는 여전히 민감한 주제로 남아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백신을 거부하겠다고 말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종교적 면제 요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다른 조사에서는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백신을 계속 거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다수는 6월까지 백신을 맞았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감소하면서 교인 10명 중 8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전염되지 않고 직접 예배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퓨 리서치는 밝혔다.

정규 교인의 3분의 2(64%)가 9월에 지난달에 대면예배로 돌아왔다고 답했으며, 이는 2021년 3월에 43%, 2020년 7월에 33%였다.

복음주의자들과 가톨릭 신자들은 그들이 주류교단 교인들과 흑인 개신교인들보다 최근에 직접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말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 북동부와 중서부의 교회 신자들은 남부와 서부의 교회 신자보다 더 돌아올 가능성이 있었다.

지난 4월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실례 예배를 승인하기 시작했다. (3면으로 계속)



기독교 국가주의 바라보는 지혜가 요구된다!

RNS, 백인 크리스천들의 기독교국가주의 신뢰도 설문조사 결과

기독교 국가주의에서 계속 반복되는 결정적인 단초가 있다. 바로 미국의 신성한 기원에 대한 믿음이다. 지지자들은 미국이 하나님께서 세계를 위한 축복과 모범으로 의도하신 "언덕 위의 도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설문 조사에 따르면 그러한 견해를 고수하는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이민자들이 미국의 현재 문화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을 침략하고 있다는 "대체" 음모이론을 믿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공공종교연구소(PRRI) CEO 로버트 P. 존스가 10월 11일 '릴리언 뉴스 서비스(RNS)' 월요일 사설을 통해 발표했다(Survey: 'Great replacement' belief correlates with Christian nationalist views: The 'great replacement' theory is popular among white nationalists).

팍스뉴스 신뢰 미국인 52% 동의 "하나님께서 미국을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의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유럽 기독교 인들이 다른 세계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의도하셨는가"라는 질문에, 백인 복음주의의 크리스천들은 과반수(52%)를 상회하는 비율로 전적으로 또는 대부분 동의한다.

히스패닉 개신교가 2위(46%), 기타 비백인 개신교(38%), 백인가톨릭(37%), 히스패닉가톨릭(35%), 백인 주류(34%)가 그 뒤를 이었다. 동의를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은 유대인 미국인(27%), (3면으로 계속)



시론 류용렬 목사



3면 푸른초장 이영상 목사



4면 교회음악 이야기 윤임상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서적/일반서적/백스텔러/성구/성화/역사/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 201)346-003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press.net |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기독교 문화사역'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고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세요! 순삭성경 Hisfinger Media 좋은책 읽어주는 그레이스타임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사역부 히스핑거는 기독교 콘텐츠제작, 기독교 굿즈제작 등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구매문의, 광고문의, 사역문의는 info@chpress.net 혹은 718-886-4400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인 칼럼

평화의 기도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지난 월요일 뉴저지에 계신 은 사님을 찾아뵈었다. 오랜만에 뵈는 것이다. 한국에 오래 머물다가 잠시 미국에 오신 틈을 타서...

지금까지 보신 간판이나 벽보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었는가? 필자는 대선에서 8년 가까이 사역했었다. 어느 도시나 그렇듯이 대선 시내에서도 수많은 간판, 벽보, 안내문 등을 볼 수 있었다.

프랜시스는 향락과 전쟁의 사람이었다. 친구들과 흥청망청 놀던 그가 기사(騎士)를 꿈꾸며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포로로 되었다.

은 세상에 기도가 가득 차 있다. 그 기도 가운데 평화의 기도는 분명히 따로 있다. 평화의 기도는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에 맡기는 기도.

[정정] 본지 제 1846호 2면 '발행인칼럼' 낫째 줄 '고열(高熱)'을 '고열(高熱)'로 바로 잡습니다. 또 마지막 줄 '남이 있다'를 '남아 있다'로 정정합니다.

알고리즘에서 도망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TGC, 무디출판사 크리스 마틴이 경고하는 알고리즘의 교활하고 거짓된 친밀함 소개

소셜 인터넷은 다양한 의견과 각종 오락이 물결치는 분주한 시장과도 같다. 쇼핑물의 상징처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는 틱톡(TikTok)과 같은 다양한 앱은 더 많은 정보와 영감 또는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우리의 끝없는 갈망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한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관계없이 피드(feeds)를 통해서 볼 내용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은 다른 앱이나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위한 탭과는 대

조적으로, 사용자의 주의를 끌어서 오로지 해당 플랫폼에서만 계속 스크롤을 하도록 만드는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관심을 끌도록 설계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소셜 미디어 앱이 사용자의 관심을 오래 끌수록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게 되고 그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광고의 가치도 더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The Insidious, Fake Intimacy of Algorithms).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은 최근 가장 진보된 알고리즘 중 하나를 갖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틱톡이 어떻게 우리의 가장 깊은 욕망을 감지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조사한 비디오를 게시했다.

오로지 슬프고 우울한 콘텐츠에만 관심을 갖도록 설계된 한 계정인 경우 틱톡이 그 계정이 무슨 내용에 관심을 갖는지 인식하는 데는 단 36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다. 우리를 무척 잘 알고 있는 것

스타그램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지는 않더라도 사실상 하



우리가 만나는 것은 진정한 친밀함, 즉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을 충족시키는 진짜 친밀함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알고리즘은 우리를 속여 우리를 돌보는 것이 알고리즘이라고 믿도록 만들 수 있다. 겉으로만 봐서는 알고리즘이 꽤나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알고리즘의 관심은 치유나 개선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

한 모든 동영상과 좋아요를 표시한 정보에 근거해 틱톡이 이 계정에 제공한 콘텐츠 중 무려 93%가 우울증 또는 슬픔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다.

불행하게도 아주 흔한 이런 예를 통해서 볼 때 알고리즘의 관심은 우울한 생각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관심을 더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울한 사용자는 점점 더 심각한 우울증에 더 빠져들 수 밖에 없다.

같은 이런 알고리즘이 소름 끼치는 주된 이유는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피드에서 만나는 내용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숨기고 싶어 하던 가장 어두운 욕망에 직면했기 때문일 수 있다.

알고리즘은 마음에 이상승배를 퍼뜨린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음미하는 것보다 소셜 미디어를 스크롤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정작 승배하는 것이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이라는 사실이 그리 더 무ნი없는 말은 아니다.

나에게 드리는 것보다 두 배나 더 많은 시간을 인스타그램에 쏟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은가? 유튜브의 통찰력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게 현실이 아닌가?

우리가 알고리즘을 “승배”하는 수준에까지 이른 한 가지 이유는 알고리즘이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욕망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아시는 데(시139:23; 렘12:3; 행15:8; 계2:23), 그건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이다.

록 유도한다.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알고리즘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와의 영원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알고리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해 우리 마음을 찾으신다. (3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Joon Mo Myung, MD, a neurologist and neurosurgeon.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

Advertisement for Bethesda Dental, a dental clinic.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

Advertisement for FAMILI STUDY, a research project at NYU Langone Health. Includes details about the study, contact information, and a QR code.

Advertisement for WKCC (Westlake Korean Community Church) regarding a church council election. Includes details about the election process, qualifica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이제는 교회에서 ...

(1면에서 계속)

델타 변종이 여름 동안 창궐하기 시작한 후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도 해당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전염이 있는 한 공공 실내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를 수정했다(10월 현재 거의 전국적으로 적용됨).

팬데믹의 이 시점에서 예배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규 교인의 절반 이상(59%)은 교회가 몇 가지 예방조치를 취하면

서 개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에 59%가 자신의 교회가 예방조치로 다시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기 때문에 이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대체로 일치한다.

나머지 교인 중 34%는 교회가 사전 예방조치 없이 모임을 갖고 있다고 답했으며, 6%는 교회가 아직 다시 대면예배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폐쇄된 교회의 수는 올해 초 17%, 지난해 31%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복음주의자들은 제한 없이 직접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가



장 많았다. 절반은 자신의 교회가 발병 이전과 같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주류 개신교의 20%, 흑인 개신교의 14%, 가톨릭의 19%가 동일하게 말한다.

기독교 국가주의 ...

(1면에서 계속)

흑인 개신교인(26%), 기타 비 기독교인(15%), 무종교인(11%)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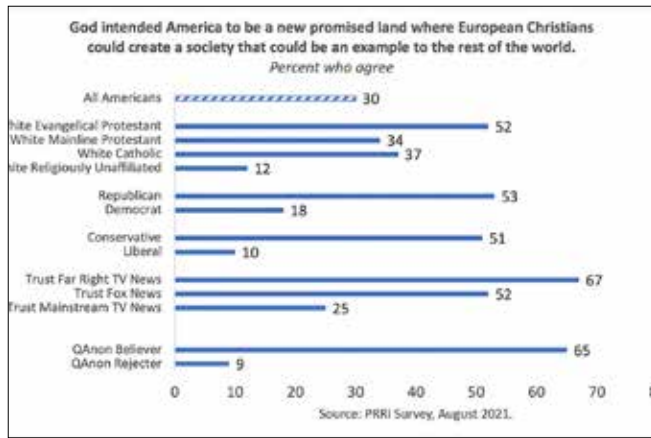
존스는 그 질문이 정복지나 식민지의 토착민의 역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수세기 동안 사용돼온 일련의 교황의 강론에 요약된 신학적 원리인 '발견의 교리'(Doctrine of Discovery)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존스의 게시물에 첨부된 차트에 따르면 이 아이디어에 대한 지지도는 공화당(53%)이 민주당(18%)보다 현재 높으며, 특히 극우 미디어 출처를 신뢰하는 사람들(67%)과 음모론이 연관돼 있다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높다

이른바 "위대한 대체이론"은 2017년 버지니아 주 살러츠빌에서 발생한 총돌 동안 이 아이디어와 관련된 슬로건을 외친 인종 차별주의자들을 포함해 백인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명예훼손방지연맹(Anti-Defamation League)은 또한 최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모스크, 피츠버그의 회당, 텍사스 엘패소의 월마트에서 대규모 총격을 가한 남자들이 모두 이 이론과 유사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경향은 이들의 온라인 선언문에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이제 더 주류 보수적인 목소리, 특히 폭스 뉴스(Fox News)에서 가장 보



수적 진행자인 터커 칼슨(Tucker Carlson)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쇼의 9월 에피소드에서 이 이론을 언급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을 "국가의 인종 혼합을 바꾸기 위해" 이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PRRI 설문조사에서 팍스뉴스를 신뢰하는 대부분의 미국인(62%)은 하나님께서 미국을 월 에피소드에서 이 이론을 언급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을 "국가의 인종 혼합을 바꾸기 위해" 이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번 전체 설문조사의 오차 범위는 +/- 1.8% 포인트다.

알고리즘에서 도망치라...

(2면에서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미치는 알고리즘의 엄청난 통찰력과 영향력을 깨달을 때 우리는 현실 속 알고리즘과 같은 수학적 존재자를 피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을 중요시하는 사람들과의 친밀감을 추구해야 한다.

직장을 잃을까봐 거의 항상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느낀다고 소그룹에서 털어놓는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웃으면서 모든 게 잘 돌아간다고 말하는가? 친구와 커피를 마실 때 심대 자녀양육이 주는 고민을 나누는가? 아니면,

그냥 새 학기 시작에 대한 부담으로 그치는가? 당신이 지금도 정육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자가 알고 있는가? 배우자는 몰라도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보다 알고리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보다 화면을 두드리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알고리즘이 나를 더 잘 아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기초한 안전한 우정을 통해 우리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



다.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알고리즘은 욕망에서 탈출하는 대신 욕망 속에 존재 전체를 단절 때 온전한 자신을 발견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우리가 믿기 원한다.

알고리즘이 우리를 하여금 믿기를 원하는 다른 또 하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라는 거짓말이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알려지고 그 안에서 자라야 한다는 사실이다.

알고리즘의 거짓된 친밀감과 거짓된 약속에 속지 마라. 진짜 친

구 및 가족과 누리는 진정한 친밀감을 추구하라. 알고리즘이 당신의 마음을 형성하고 예배를 흠치도록 놔두지 말라. 목적 없이 스크롤하고 클릭하는 시간을 줄이고,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모든 피드에 속절없이 빠지지 않도록 하라. 대신 기도와 성경연구 그리고 예배를 통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라.

오늘날 온라인 생활에 관한 야근 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내가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콘텐츠가 당신을 소비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시론

한미 국가조찬기도회



류영렬 목사 (와싱턴중앙로교회)

10월 9일 메릴랜드 헬로십교회에서 제 16회 한미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팬데믹 가운데서도 새벽을 가르고 달려온 많은 분의 격려와 기도 인도가 있었습니다. "Rejoice in Hope"라는 주제로 열린 기도회는 힘겨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둠 속에 빛이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내온 인사말에서 "한미 국가조찬기도회 개최를 축하하며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성도들께 깊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지속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정치인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서면과 직접 대면으로 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팅커터 신학대학원의 전 총장 피터 티그는 "기도 조정"이란 제목으로 중요한 역사의 순간마다 기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는 다양한 곳에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의 뜨거운 기도 인도와 함께 온 회중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팬데믹 중에도 이렇게 기도회를 가질 수 있는 것과 한 번의 행사로 여기지 않고 간절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사용한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기도가 중심이 되었을 때 사람의 능력과 계획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빌리 그레함의 새벽을 깨우는 세 나라를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새 소리가 새벽을 깨운 캐나다는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기계소리가 새벽을 깨운 일본은 경제대국입니다. 교회 종소리가 새벽을 깨운 한국은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미래의 빛은 기도하는 한국 위에 임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한국교회역사에 기도는 등배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일제의 강점기 동안에 한국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금요일 밤이 되면 곳곳에 교회는 밤이 지새도록 기도의 제단을 쌓아 올렸고 기도원마다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광범한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로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도 루터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라비아 선교회가 세계를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일 수 있었던 계기도 기도로 성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회복이고, 그 회복은 기도로 말미암아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 능력만큼 열매를 얻겠지만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면 하나님 능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우리 몸을 깨우는 아름다운 날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해마다 한번으로 끝나지만 신자가 마주하는 기도의 삶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사회적인 비난의 화살 앞에 놓인 한국교회가 기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흥을 이루어내고, 교회마다 기도로 함으로 비상의 날개를 힘차게 펼치기를 소망합니다.

preachchrist@kcpc.org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7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7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환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가 나가 풀린 것 같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청객인 코로나가 찾아와 거의 2년 동안을 물러갈 생각도 없으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영국 속담에 손님이 찾아와 3일이 지나면 뉘새가 난다고 했는데, 무려 2년 가까이 되었으니

코로나의 '코'자조차도 싫어진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2억3천명 가까이 되었고, 사망자도 4백7십만 명이 되었다. 그만하면 죽한 줄 알겠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야 할 텐데 이놈은 어찌된 셈인지 엄지도 없다. 인정사정 보지 않는다는 듯

여전히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처럼 활동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놈에게 잡혔다고 신고한 듯, 문밖에서는 엠블런스의 사이렌소리가 귀가 따갑다. 그동안 백신공급이 원활한 나라들은 이제 대수롭지 않고 여기는 것 같다. 대부분 마스크도 벗었고, 거리두기도 패념치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백신을 거절하고 절대로 맞지 않겠다고 항변하는 자들도 상당한 것 같다.

잘못된 확증편견에 사로잡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린카드도 완강하게 반대한다. 그들 중에는 소위 지성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는 의료인들도 있다. 세상은 참 희한하게 돌아간다. 그러나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나라들은 여전히 노

심초사하고 있다. 그들은 학수고대하면서 백신을 공급받고 싶어 하는데, 백신이 충분한 나라들은 거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한이 얼마 남지 않는다. 세상이 왜 이래, 테스트형!

그 뿐인가! 올해는 산불이 맹렬하게 일어났고, 태풍 및 하늘에서 쏟아 부는 큰비로 인한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이 크다. 유일한 거처를 산불로 태워버린 사람들, 또는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집을 쓸러버린 사람들의 눈물이 유난스러울 만큼 한 해다 싶다. 이 모든 일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남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한다. 마치 욕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단의 습격을 받아 황망하였던 것처럼.... 지난 9월 더위는 수십 년만

의 뜨거움이라고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이상기후로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우연한 만남인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혹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상황을 알려 주시는 영적 사인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복음서에 예언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상황과 매우 흡사한 점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세상이 점점 더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친구와 이웃, 이 모든 관계가 온통 물질로 변해가고 있고,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관계가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얽연하게 주신 관계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살상의 자리까지 넘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대다.

나라가 불안하니 분과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그러나 내분으로 인해 나라가 피폐하게 되고 있다. 중동 분쟁으로 어렵게 되니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유럽으로 건너오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난민을 더 이상 수용하기 힘든 유럽은 터기에 매년 수십억을 지원하며 난민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이런 때야말로 고개를 들어야 하는 때가 아닐까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말이다.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이영상 목사
(뉴욕중앙산정현교회)



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한계에서 머물러고 발버둥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좇는 길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머리로 해결방법이 안보여도 이루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없이 큰 오빠의 손으로 자라난 이방 여인 에스더가 대 페르샤 제국왕후가 될 줄 누가 감히 알았겠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오전 예배드린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믿어도 난 안 믿는다고 빠기던 사람들도 주일날 늦게까지 남아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

구원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바사 남자들은 와스디 왕비로 인해 고민을 하겠지만 에스더는 왕비가 되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것인지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동으로 우리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교회와 온 교우들 위에 넘쳐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왕후 와스디가 폐함을 당한 것처럼 예수그리스도의 초청을 거절한 신부들은 어린양 혼인잔치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이를 갈며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고후 6:2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구원의 날 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조건 없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에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고민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거룩한 고민에 빠지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옆집의 부인이 남편에게 잘못하는 것 옮겨 될까봐 고민하지 말고 내 생각과 내 행동 내 믿음생활이 혹 아내 남편 자녀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내 신앙의 모습을 고민해야 합니다. 혹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말뿐이라는 모습을 부인에게나 남편에게나 주변에게서 듣게 된다면 이것은 벌써 나도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딤후 4:16절에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들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들은 것을 행할 때에 나를 보는 주변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민에 빠진 바사제국 남자들 중에는 자신의 행실이 온전하다면 아무도 왕비의 행실을 본받아 그들의 남편을 업수이 여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이 되지 못하는 추한 삶을 살아가기에 바사제국남자들은 큰 고민에 빠졌고 22절을 보면 법을 정해야만 가정을 주관할 정도로 한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마칩니다.

바사제국 남자들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방향을 바꾸십시오. 내 삶의 모습이 가정과 이웃과 그리고 교우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십시오. 나의 행실과 나의 입술을 누군가가 본받게 된다면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조서를 내려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온 가정의 주관자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우신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세상 속 현실의 어려움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외쳐야 합니다. 어린양의 혼인잔치의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의 주변에는 한사람도 없도록 외쳐야 합니다. 폐함 받은 왕비처럼 슬픈 인생이 없도록 우리도 왕의 명령을 외쳐야 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에스더 같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ang78us@Yahoo.com

바사제국 남자들의 고민

에스더 1장 9-12절

비는 비슷한 시기에 왕만 잔치나 하면서 다른 잔치를 배설하고 왕궁에서 부녀들을 모아놓고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잔치를 벌이니 이집 구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왕비는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만약 왕이 혼자 가서 조용히 얘기하다 거절당하면 왕 혼자서 알아서 처리하면 기분은 나쁘지만 아무 일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일곱 명이나 되는 여전 내시 앞에서의 망신은 도저히 그냥 넘어 갈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아랫사람들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했으니 왕으로서의 참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굉장한 화가 났습니다. 12절을 보면 '중심이 불붙는 듯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원어는 '속에서 불이 났다'라는 말입니다. 경상도말로 '뒤집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분함을 참을 수 없어 규례 및 법률 담당하는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16절을 보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가?' 라고 묻지 않고 왕의 명령을 어긴 자는 어떻게 처치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3인칭을 써서 엄벌에 처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리간이

이 굴뚝같은데 괜히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왕이 너나 죽어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 줄과 줄 사이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 에스더가 설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솜씨를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희한한 역사를 만들어 가셔서 에스더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불러들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사야 55장 8-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

실은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사역이 지금 이 시각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다리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믿고 감사하며 살아 갈 때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사 남자들은 고민에 빠졌지만 유대민족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 온 유대백성들을 죽음에서 구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구원의 큰 일꾼들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왕의 명령처럼 주님의 명령은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합니다. 잔치에 초청해야 합니다.

신부는 신랑이 부르면 달려 가야 합니다. 내일이 바쁘다고 내일이 급하다고 신랑이 부를 때에 딴 일하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신랑이라도 신부를 폐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일에 빠져서 신랑도 모른 채하며 세상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의 초청을 거절한 와스디 왕비를 생각하십시오. 속히 나와야 합니다. 하던 일을 중지하고 왕이 부르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 우선권을 두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는 남자들의 고민입니다.

가정의 가권을 잡지 못해 슬퍼하는 남자들의 고민입니다. 오늘도 2500년전 바사제국남자들처럼 우리 중에도 고민하는 남자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하수세로왕이 와스디 왕비를 폐하고 에스더 왕비를 얻는 것처럼 헌부인을 폐하고 후부인을 들일 수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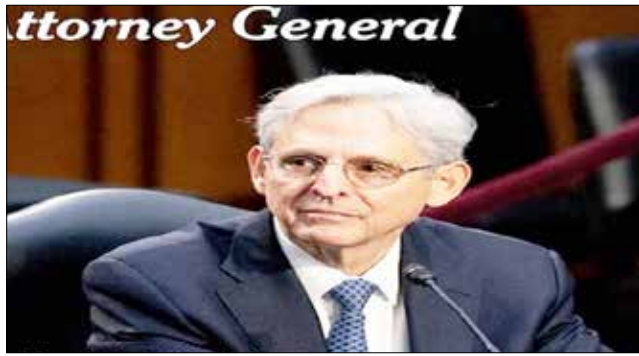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CRT교육 반대 부모를 “Domestic Terrorist” 로!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미 법무장관 Merrick Garland이 공립학교 안에서 공산주의 사상의 뿌리를 자랑하는 CRT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는 부모들을 향해 “Domestic Terrorist”라고 부른 이후 협박성 메모까지 전달해 더 심각해진 상황!



음 같지만 이것은 대대적이고 시대적이며 성격이 이미 알려주는 매우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며 우리 세대들에게는 더 빠른 아픔과 고통이 있기에 큰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 미정부가 지향하는 정책들은 최고도 정신에 기반을 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하고 미워하는 막시즘에 기반을 둔 “사회공산주의”로 대체하려는 뒤에서 조정하는 악의 세력들의 수십 년의 공략을 현실화 시키려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CRT 사상이념은 바이든과 그 행정부가 백악관에 들어 오자마자 SOGI(Sexual Orientation & Gender Identity,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 및 모든 “성향”을 포함한 전문용어)를 더 확산시키는 동시에 새롭게 공립학교 시스템 안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밀어 부치는 학습/수업 내용으로 들어가게 하는 정치적 정책입니다.

따라서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이런 뒤 배경들을 짚어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립학교 안에 CRT가 빨리 정착하여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상”화 시키는 것이 목적이기에 그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하지만 학부모와 교역자의 입장으로서는 절대적으로 시행해서는 안될 최고 위험한 위협적인 사상이며 이념이기에 절대로 공립학교와 어디서든 “좋은 것, 선한 것”으로 가르쳐져서는 안 되는 이념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사위 기업 이 CRT를 확산하는데 금전적 기여

그것은 폭스뉴스(Fox News)가 갈랜드 법무장관의 사위가 '문화적으로 대응하는 훈련(culturally responsive training)'과 비판적 인종 이론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학교 이사회들과 협력해서 홍보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진 'Panorama Education'의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라고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인까지 된 상태입니다.

비영리 교육감시단체인 Parents Defending Education에 따르면 파노라마는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들에서 “사회적, 정서적 학습” 감시를 수행하기 위해 18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왜 그래야했을까요? 왜 학생들을 감시하는 걸까요, 그것도 미국에서?

Parents Defending Education의 조사 및 전략 담당 부사장인 Asra Noman이 트위터에 Galland 장관과의 연결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트위터에 통해 나누었습니다.

주요 주목할 점은 교육을 할 공립학교들과 이 파노라마는 더 이상 아이들을 건강 한 교육을 하는 교육터전이 아니라 학생들을 피부색깔로 나뉘고 서로 질투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또는 자신이 백인으로 태어난 것을 증오하며 죄책감을 느껴 자살충동까지 갖게 하는 “비판적 인종 이론-CRT”와 거짓 “반인종차

별-Anti race discrimination”에 대한 논쟁의 전쟁터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공산주의 뿌리를 가진 이념과 사상의 노예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정신 있는 학부모들의 당연한 고령입니다!

위험으로 인한 수사의 대상은 오히려 따로 있다?

갈랜드의 메모는 학부모들을 “Domestic Terrorist - 국내 테러리스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학부모들의 실제 증거도 없이 “범죄 행위의 증거”라고 적는 등 모호한 언급으로 메모가 공개되었습니다. 그의 메모에는 비판적 인종이론(CRT) 홍보자들이 오히려 학부모들과 대중에게 위협을 가한 사례가 더 많았다는 사실은 하나도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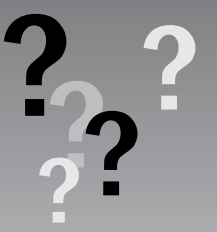
지난 7월에 버지니아 주 PTA의 Michellite Communications 부사장 겸 Fairfax County NAACP의 초대 부사장은 매우 진보성향이 짙은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에게 CRT를 찬성하는 군중들에게 소리치며 다음과 같이 선동했습니다.

“이 글러먹은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마땅히 거부해야 한다. 그들은 반교육, 반교사, 반평등, 반역사, 반인종적 인지, 반기회, 반도움, 반다양성, 반플랫폼, 반과학, 반변화요원, 반사회적 정의, 반보건관리, 반노동자, 반LGBTQ++, 반환경, 반포용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자. 이렇게 우리에게 불편함을 야기하는 자들이 우리의 당당한 전진적 행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Let them die. Don't let these uncomfortable people deter us from our bold march forward).”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로마의 탄생과 로마가 왜 기독교를 핍박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팔로스 버디스 김 권사

A: 로마는 현재 이탈리아로서 지중해 중앙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에 있으며 남쪽에는 시칠리아 섬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전승이나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트로이 함락과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40년이 넘는 기간을 로마에서 로마사를 연구한 일본인 작가인 시오노 나미가 쓴 “로마인의 이야기(1)”를 읽어보면 보면 로마 건국의 다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로마를 이해하는데 필요할 것입니다.

기독교인, 로마황제숭배 거부로 박해당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계문화 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에 따르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안의 풍요로운 도시인 트로이는 아가멤논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그리스군의 공격을 받아 10년 동안이나 계속된 공방전도 드디어 종말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때가 기원전 13세기 무렵이다. 그런데 해변에 서있는 거대한 목마를 발견한 트로이 사람들은 그 목마를 그리스군이 공격을 포기하고 철수하면서 남긴 선물로 오해하고 10년 동안 지켜온 트로이 성 안으로 목마를 끌어들이고 말았다. 승리를 눈앞에 두었다고 생각한 트로이 병사들이 깊이 잠든 밤, 목마 속에 숨어있던 그리스 병사들이 한 사람씩 땅에 내려왔다. 화염과 아비규환에 휩싸인 트로이는 그날 밤에 함락되고 말았다. 왕족도 서민도 가차없이 살해되고 목숨을 건진 자는 노예가 되었다. 이 같은 참극 속에서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의 사위인 아이네아스만이 일족을 이끌고 탈출에 성공한다. 아이네아스 일행은 몇 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불타는 트로이에서 탈출했다. 여러 섬에서 카르타고를 거쳐 이탈리아 서해안을 북상하여 로마근처의 해안에 이르러서 겨우 끝난다. 아이네아스가 죽은 후에 그와 함께 트로이에서 탈출한 아들 아스카니오스가 왕위를 물려 받았다. 그러나 아스카니오스는 3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뒤 그 땅을 떠나 알바롱이라고 이 름지은 새도시를 건설한다. 이것이 훗날 로마의 모체가 된 도시였다.”

그런데 로마제국은 주후 1세기를 전후해서 약 250년간 기독교를 박해 하였습니다. 교회사를 전공한 김인수 목사의 글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을 보통 십자가형에 처했고, 다음으로 굶주린 맹수의 굴에 던져 맹수의 밥이 되게 했으며, 기름이 실설 끓는 가마솥에 던져 죽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울 사도처럼 죽을 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큰 칼이나 큰 도끼로 목을 쳐서 죽이는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로마제국은 다른 나라를 점령한 후에 3가지 원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로마황제를 숭배할 것, 둘째는 세금을 낼 것, 셋째는 병역의 의무를 다 할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만을 요구하고 그 외는 모든 자유를 주었습니다. 즉 그들의 언어, 종교, 전통, 관습 등 모든 것을 존중해주고 일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독교도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죽였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도들이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황제숭배 거부와 병역의무의 거부였습니다.

(9면으로 계속)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3.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4.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5.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 목회전공
- + 선교전공

2021년 가을학기 온라인 강의 일정

8월 23일-10월 17일
DI8530 Biblical Theology of World Mission
(세계선교의 성경신학)

10월 18일-12월 18일
DI8160 Church Planting & Growth
(교회 개척과 성장학)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 입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상장로교회)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복음”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갓 나온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지루한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83개국에서 1위를 구가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무엇이 이토록 세계를 강타한 한류 드라마인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인도네시아 제자들이 Facebook에서 저에게 정말 한국에서 그런 놀이를 했는가 확인 차 물어옵니다. 한국의 놀

이문화에 대한 관심이지요. 제 자녀들도 아빠가 어릴 때 그런 놀이를 했는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귀한 추억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의 세속적 문화 축제인 할로윈을 준비하며 많은 비즈니스들은 오징어 게임에서 경비원들이 입었던 캐릭터 의상과 가면이 상종가를 치고 있다는 뉴스도 접합니다.

왜 그토록 이 드라마가 세계

인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는가? 이유는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한류가 한 몫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한국 사회의 정서, 더 나아가서는 자본주의와 돈을 쫓는 세상 사람들의 정서를 그려낸 드라마 설정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문화의 깊숙이 배어있는 한국 사람들의 놀이문화, 특히 한국의 어린이들이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공터에서 놀던 다양한 게임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 속에 너무 끔직한 장면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대변해주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사회에서 빛을 지고 낙오된 사람들이 한탕주의로 돈을 벌기위한 목적으로 게임에 참여하지만 그것이 목숨과 맞바꾸는 스토리 구성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 목숨을 담보로 일확 천금을 노리는 게임과 탈락한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섬뜩한 장면들에 왜 세계가

열광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영화에서는 말 그대로 생존 경쟁이지만 그런 장면을 보면서 카타르시즘을 느끼고 잔인성에 환호하는 세상의 죄악된 가치가 더 섬뜩한지도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 배어있는 놀이문화와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가치가 잘못 알려질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유년시절 한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주는 재미, 딱지치기로 꿀밤 먹이기, 구슬놀이에서 따온 구슬을 보면서 들었던 기억, 학교 운동회 때 하던 줄다리기, 실랑뽀기를 해서 선물 받던 재미들이 여전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게임을 생각하면 엄마가 저녁밥 먹으라고 부르기 전까지 신나게 놀던 동네 모습과 함께 아련했던 어린 시절의 감상 속에 빠지곤 합니다. 이렇듯 옛 놀이문화의 소중함을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공포로

재설정 되고 죽음의 놀이로 변하는 기분 나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좋았던 기억들이 지우개로 다 지워지고 놀이 한판에서 실존적 생과 사를 오가는 절망적인 놀이가 된 것을 사람들은 재미있다고 보고 배어있는 놀이문화와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가치가 잘못 알려질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바로 총이나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수시로 보게 됩니다. 누구나 자기 보호를 위해서 좋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고 하지만 죄악 된 세상은 인권을 무시하고 죽이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승리하시면서 삶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죄악 된 세상은 여전히 그의 근본인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한탕주의를 그려내는 영화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탕주의, 로토당첨에서 바랬던 꿈을 영화로 대리 만족하며 몰입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속적 가치를 확대되지 않도록 성경적인 가치를 더욱 끈고히 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의와 평강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죽이지만 복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가르치는 생명의 복음을 특히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환호하는 죽이는 드라마에서 가치를 이어받지 않고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gybac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아이티, 美 선교단 17명 납치

중미 아이티에서 어린이가 포함된 미국인 선교단 17명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이티 수도인 포르토프랭스에서 선교사들과 가족 등 17명이 범죄단체에 납치됐다. 이들은 한 보육원을 떠나던 중 이 같은 봉변을 당한 것이다.



CNN 방송은 이들 중 16명은 미국인, 1명은 캐나다인이라고 전했다. 선교단체 측 발표에 의하면 그 중 어린이는 5명이다.

NYT는 현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선교사들이 다른 목적지로 이동하기 전 다른 선교사들을 내려주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던 중 버스가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NYT에 따르면, 아이티 경찰 당국은 ‘400명의 마와조’를 납치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다. 경찰은 이 조직이 크루아 데 부케 지역을 무대로 납치와 차량 강도, 상인 갈취 등의 범죄를 저질러 왔다.

이들은 아이티에서 가장 먼저 납치 범죄에 나선 조직 중 하나로, 몇 달 동안 경쟁 폭력 조직과 무장 투쟁을 벌이고 사업가들과 경찰관들을 납치하며 테러를 자행해 왔다.

아이티 정부는 1990년대부터 빈민가를 중심으로 활동해왔으며, 마약, 밀매 등 불법적 사업으로 조직을 확장시켰다. 정치인들은 반대파 암살 및 시위 동원 등 자신의 영향력 확장을 위해 이들을 활용했고, 정부는 사회 곳곳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됐다.

이들은 버스를 이용한 대규모 납치에 관여한 전력도 많으며, 지난 4월 프랑스인을 포함해 5명의 신부와 2명의 간호사를 납치한 적도 있다. 버스에 총격을 가해 어린이를 숨지게 하고 교회를 습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순위”라며 “납치 보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현재로서 추가로 발표할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포르토프랭스에 본부를 둔 인권 분석 연구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29명을 포함해 총 628명이 납치됐다.

이와 관련, NYT는 “과거 아이티 정부는 미 정부의 보복이 두려워 미국 시민들 납치를 꺼렸으나, 날이 갈수록 이들의 범죄가 대담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레고, ‘여아용·남아용’ 구분 없어

세계적인 장난감 기업 ‘레고’가 제품에서 남아용·여아용 구분 라벨을 없애고 성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제품을 만들기로 했다. 또 레고의 웹사이트에서도 더이상 장난감 세트를 성별에 따라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



남·여로 구분된 장난감 놀이가 성 고정관념

을 만들고 사회에 고착화시킨다는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레고가 성 중립적인 장난감을 만들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레고는 “어릴 적 성 고정관념을 없애려는 발전이 이뤄져 왔지만, 놀이와 창의적인 업무를 둘러싼 일반적인 태도는 여전히 불평등하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레고가 지나 데이비스 미디어 센터 연구소와 자체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모들은 여전히 ‘과학자’하면 남성을 떠올리는 등 성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자아이들은 사회에서 규정한 성 규범의 경계를 뛰어넘는 일에 더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며, 남자 아이들은 여자아이와 관련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다른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이나 놀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레고의 마케팅 책임자 줄리아 골딘은 가디언 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부터는 전통적으로 자신의 성별을 위한 장난감이 아니라도 여겨졌던 레고 세트를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격려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장난감 및 기타 아동용 제품 판매점에서 성 중립 진열대를 의무화하는 법을 마련했다. 2024년부터는 대형마트 등에서 장난감이 성별 구분 없이 진열된다.

테네시주지사, 올해도 금식 기도의 날 선포

빌 리(Bill Lee) 테네시 주지사가 주 전역에 걸쳐 기도와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빌 리 주지사는 자신이 취임하던 해인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3번째 매년 금식과 기도의 날을 선포해왔다.



크리스천헤드라인뉴스에 따르면 빌 리 주지사는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2021년 10월 11일을 테네시주의 자발적인 금식, 겸손, 기도의 날로 선포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모든 시민들이 이 가치 있는 의식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빌 리 주지사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테네시주와 미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친절함, 정의로움,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많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주께서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했다.

아울러 “테네시주민들이 며칠 동안 이미 하나님께 받은 풍요로운 복, 우리의 깊은 잘못, 앞으로 다가올 복잡한 도전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USBC 아카이브에 따르면 미 정

부 지도자들의 금식 선언의 역사는 18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93년 3월 30일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 회개, 단식, 기도의 날’로 지정하고 선포했다.

링컨은 모든 이들이 주님을 위해 거룩한 날을 지키기 위해 다른 예배의 장소나 집에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전통은 제45대 대통령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까지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5월 4일 기도의 날을 선포한 바 있다.

빌 리 주지사는 작년 7월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는 시기”인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한 어떤 상황에서도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주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은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낙태 반대법이다. 생명은 소중하고, 모든 소중한 것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했다.

또 지난 4월에는 테네시주 하원에서 성경을 ‘공식적인 주정부 서적’으로 채택하는 결의안이 찬성 55대 반대 28로 통과되기도 했다.

“정치갈등 심각 90%” 한미 공동1위

국내 정치적 갈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시민들의 비율이 주요 선진국 중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 갈등뿐만 아니라 종교적 갈등, 도시·농촌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선두권을 차지했다.



14일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17개국 시민 1만8850만명을 대상으로 다양성과 갈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다수 한국 시민들은 정치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봤다. 지지 정당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의 경우 ‘심각하다’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에 달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50%에 달했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또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 1%를 기록했다.

이는 조사 대상 17개국 가운데 미국(90%)과 함께 공동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미국은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는 등 지지 정당에 따라 극심한 정치적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자국 내 정치적 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한 시민의 비율이 과반을 넘긴 국가로 대만(69%), 프랑스(65%), 이탈리아(64%), 스페인(58%), 독일(56%), 영국(52%), 그리스(50%) 등이 있었다. 일본(39%), 네덜란드(38%), 뉴질랜드(38%), 스웨덴(35%), 싱가포르(33%) 등은 40% 미만이었다.

한국은 종교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도 61%로 조사 대상 17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종교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프랑스가 유일했다.

미국은 종교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49%였다. 독일(46%), 벨기에(46%) 등이 뒤를 이었다. 스페인(19%), 대만(12%) 등은 종교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률이 10%대였다.

한국에선 도시·농촌 거주자 사이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 비율도 43%로 조사돼

조사 대상국 중 2위를 차지했다. 한국보다 해당 수치가 높은 국가는 프랑스(45%)뿐이었다.

인종·민족 등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57%에 달해 미국(71%), 프랑스(64%)에 이어 이탈리아(57%)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퓨리서치센터는 “한국에서 인종·민족 갈등이 인식하는 응답은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에서, 교육 수준별로는 높은 교육 수준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인스타그램에 ‘위키 그림자’

인스타그램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사진·비디오 공유 앱이다. 중국산 틱톡이 성장했다 해도 인스타그램의 아성은 깨지지 않고 있다.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정을 열어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자유롭게 업로드할 수 있고, 파일의 길이는 틱톡처럼 제한적이지 않다.



그런 인스타그램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17일 이 회사의 내부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위기의 근원은 인스타그램의 최대 고객인 10대층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이 문서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10대 미국인 사용자들을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최고의 사용자 프라이프라인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쓰여져 있었다.

2년 전에도 이같은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 사업실명회를 개최하면서 “다른 소셜미디어서비스 앱의 약진은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줄어들 잠재적 개연성을 낳고 있다”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어서다.

지난해 인스타그램은 10대 사용자층을 유인하기 위해 3억9000만 달러를 홍보와 광고 마케팅에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10대들이 유인되기 보다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다 20대가 된 청년층을 유지하고, 10대들의 부모세대를 소규모 끌어들이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의 성장엔진으로 여겨져 왔다. 워키보다 보기를 더 선호하는 고교 재학 이하의 10대 사용자층을 대규모로 끌어들이 이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었기 때문이다. 인스타그램 사용자들 가운데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60%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 시작된 인스타그램은 2년뒤 사용자 1억명을 돌파했고 2014년 페이스북에 합병된 뒤 현재 사용자 숫자는 13억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10억명을 돌파한 틱톡, 5억명을 달성한 스냅챗 등의 부상으로 앞으로의 소셜미디어서비스 앱 1등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모바일 업계의 분석이다.

브록 더피 코넬대 미디어공학과 교수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모바일 시장의 주 고객인 10·20대 젊은 층은 언제나 새로운 앱, 새로운 서비스에 열광해왔다”면서 “따라서 기존의 수백 개 강자들도 항상 방어적 전략에 고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때 인스타그램의 새로움에 빠졌던 10대들이 이젠 ‘내가 사용하는 이 앱이 식상한 거 아닐까’하는 의문을 짚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33. 양춘명(1872-1944)

양춘명(梁春明)은 1872년경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1905년에 멕시코 유카탄으로 이민 갔다가 노동계약이 끝나면서 어려운 생활에 살길을 찾아 1921년 3월경에 쿠바로 이주하였다. 그해 4월에 마나티 지방에 도착하자 에네켄 농장에서 노동하였다. 그가 마나티 지방에 도착한지 5개월이 되던 그해 9월에 국민회 마나티 지방회가 조직되면서 양춘명은 회장에 선임되었다. 얼마 후 양춘명은 동료 여러 명과 함께 맞단사스 만이 내려다보이는 엘 볼로 농장으로 이주했다. 그해 10월 5일에 맞단사스에서 교파를 따지지 않고 감리교인과 안식교인이 함께 모여 한인 예수교회를 조직했을 때 그도 함께했다.

결혼했다. 지방회 법무부에서 신혼 문답식을 거행하고 스페인어로 번역된 혼인증서를 발급받은 뒤인 하오 2시에 한인예수교회 예배당에서 권사 양춘명의 주례하에 찬송가와 기도가 있는 후 신랑 신부와 주혼 증인에게 문답식을 거행하였다. 권사로 소개된 점으로 보아 권사활동을 맡은 집사임을 알게 된다. 그 결혼식에 한인 3명이 사당하였으며, 임경 동포와 한국 동포가 각각 한 명이 있었다.

1927년 3월 1일 하오 8시에 지방회 총무 임전택의 개회로 삼일절 제8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이날도 양춘명은 권사로 소개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양춘명은 기도와 본국 지지 진술의 순서를 맡았다. 그해

여 기쁜 소식을 접했는데, 본 지방회 총무 겸 서기였던 임전택이 신경쇠약증으로 입원하려 했으나 만원이어서 자택에서 치료한다는 보도에 우울했다. 그해 성탄절에 양춘명의 주례로 신실한 교인이었던 차희관과 이애슬씨의 결혼식이 있었다. 맞단사스 통신이 신한민보에 기고한 기고문에 따르면 “한인사회에서는.. 혼례를 하게 되면 국민회에 청원하여 혼인증명서를 요구하는 전례가 있었으나 이번 혼인에는 교회 혼례식을 중대히 여겨 하나님의 뜻대로 혼인하는 것을 존중히 알아 권사 양춘명 앞에서 신중한 문답을 할 때 신랑신부의 굳은 믿음이 언사에 나타나 일반 교우와 쿠바 사람과 남녀 40여 명이 탄복함을 마지않았다. 찬송가 256장을 부르고 양 권사의 간단한 기도가 있는 후 성경을 낭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남녀는 내신 사작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맹약한 후에 사람의 뜻대로 마음을 변치 못한다는 뜻을 설명한 후에 신랑이 예비한 지환(반지)을 신부의 손에 끼울 때에 신랑의 우악한 손으로 신부의 섬섬옥수를 잔뜩 움 잡고 무명지에 끼울 때에 신부는 이날 모은 빈객을 접대할 준비를 하느라고 일을 많이 한 고로 손에 피가 내렸는지 손가락이 통통하여 지환이 잘 들어가지 않으니 신부는 아픈 것을 참느라고 곱게 단정히 흉안을 찌푸렸다. 주례자의 명령으로 신랑신부가 입을 맞추라고 한즉 사람이 넘친 신혼 남녀 두 분이 어느 듯 ‘꼭!’ 하는 소리는 일반 청중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하였다. 이어 찬송가 257장으로 합창한 후에 식을 피했다더라.”

사 가정에 득남하여 기쁨이 계속 이어졌다. 1933년 5월에 장영기 전도사와 터커 여선교사 간에 불미스러운 시비가 발생하여 터커 여선교사가 사면하고 장영기 목사는 맞단사스 한인 안식교회를 조직하고 안식교회 전도사로 활동했다.

한인감리교회 전도사

1933년 5월 이후 교회지도자가 떠나는 적지 않은 파란과 곡절을 겪으면서 한인 감리교회는 미국교회의 도움 없이 완전히 한인의 자치교회로 되었다. 이우식이 한인감리교회 전도사로 선임되었으며, 총무집사에 고창덕, 서기집사에 태덕일 그리고 재무집사에 이흥점이 선출되었다. 이후 양춘명은 직분을 맡지 않은 교인이었다. 양춘명이 1936년 9월에 늑막염으로 의사와 병원을 찾았는데 이듬해 2월에도 완치되지 못했다. 그해 4월 그를 찾은 신한민보 기자에게 여러 달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동포들에게 감사하는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해 5월에는 고창덕이 양춘명의 한 달 식료품을 공급하였고, 지방회 구제부도 재차 특연금을 모아 양춘명의 병원비를 도왔다.

1938년 새해부터 양춘명이 한인감리교회 전도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1월에 이승준의 장남 이병호의 생일과 마지막 아들 항복의 첫돌을 맞아 잔치를 열었다. 이날 양춘명의 축사가 있는 다음에 준비한 음식을 베풀어 즐겁게 보냈다. 그해 삼일절 기념식에서 양춘명이 기도순서를 맡았으며, 그달에 있었던 안창호 선생 추도

해 9월에 52일 동안 일이 없어 어려움에 처한 갈데나스 동포들을 위해 14원 30전을 특별헌금을 할 때 양춘명도 20전을 기부했다. 대한여자애국단 서기와 재무이자 한인감리교회의 신진 인물로 떠오른 임경옥과 박선녀가 성탄절에 성탄극과 취미극을 연출하였다.

1942년 삼일절에서 양춘명은 기도했고, 그해 4월에 두 아들 이병호와 이거복의 주선으로 이승준의 회갑연이 있어 양춘명이 식사와 축수의 예시를 담당했다. 그해 8월에 맞단사스 지방회는 대한여자애국단과 함께 829 헌기식을 하였는데 이날 민성국어학교 학생들의 무궁화기의



한인예수교회

찬미가 있는 다음에 양춘명이 기도하였고, 이산호와 호갑년과 함께 양춘명이 연설도 했다. 그해 12월에 김봉재 아들의 첫 돌 잔치가 있었고, 평안도 안주에서 태어나 이들 형제를 데리고 이주한 이윤근이 향년 56세로 세상을 떠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양춘명이 심방했을 것이다. 그 달에 있는 대일선전 1주년 기념식에서 양춘명이 기도했고, 이승택과 서문경과 장영기와 함께 그도 기념사를 연설했다. 그해 12월 24일 밤에 양춘명 전도사의 사회로 성탄예배를 드렸고, 저녁에는 임경옥과 주미영이 성탄극과 취미극을 연출하여 만장 관객에게 흥미를 주었고,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누고, 주찬으로 동포를 접대하였다. 성탄 경비를 위하여 여러분이 낸 의연은 총 13원 20전이였다.

1943년의 새해에 박희성의 2세 된 여아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받은 다음 달 1일에 국민회 창립 제33년 기념식에서 양춘명은 서문경과 고창덕과 함께 연설했고, 삼일절 기념식에서 양춘명이 기도순서를 맡았다. 그해 12월에 맞단사스 지방회는 병환 중인 장윤익과 함께 양춘명에게 지방회 회원 전부가 매 주일에 5전씩 출연하여 연명하도록 하였는데 그 달 24일 밤에 양춘명 전도사의 사회로 성탄절 예배를 드린 후 이신실의 지도로 20여 명의 소년과 소녀가 성극을 연출하여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양춘명은 1944년 5월 말에 공립병원에 들어가 치료를 받고 8월 초에 퇴원하였으나 병세가 더욱 위중하여 재차 입원하며 고통이 심했다. 맞단사스 지방회가 주최하여 순국선열 기념식을 한 지 이틀 후에 1944년 10월 19일 새벽 4시에 72세의 나이로 소천했다. 조국의 해방을 10개월 앞둔 때였다. 그가 남기고 간 물건을 판값 7원 75전과 지방회 회원 1인당 1원씩 특별 기부하여 그의 장례비 39원 75전을 마련하였다. 2020년 한국정부는 그의 독립유공을 인정하여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damien,sohn@gmail.com

에네켄 농장계약 끝난 후 쿠바로 이주, 한인예수교회 조직 참여 1938년부터 한인감리교회 전도사로 사역...2020년 건국포장 추서

한인들의 생활이 곤란하여 문을 닫았던 민성국어학교가 그해 6월에 다시 개학하기로 하고 중학교의 임원을 선정했다. 양춘명은 영어과 교장을 선출되었다. 기타 임원으로는 한국어과에 교장 김덕순, 교사 임전택, 간사 고창덕이 있었고, 영어과에 교사 터커 여선교사와 조교사 임전택이 있었다. 그해 9월 신한민보에는 맞단사스에 “(한인)예수교회가 있어서 영혼상 구원도 수양한다더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달에 지방회 평의원 윤창배에게 아들이 태어났고, 재무 임전택에게 딸이 출생했으나 한인예수교회에서도 경사였다. 그런데 지방회 평의원 서문경이 우연히 철사못에 찢려 입원 치료하여 본 지방회는 구제금으로 7원을 주었는데 권사였던 양춘명이 심방했을 것이다.

그달에 신한민보는 양춘명을 한인예수교회 간사로 소개하면서 결기부족증과 기침으로 입원하였다고 보도했다. 이 간사직이 집사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 달 10월에 민성학교 영어과 교장직을 사면했던 것으로 보아 건강이 위태로웠던 것 같다. 그러나 그달에 주한옥이 득남하

노동 공황이 심각한 1929년, 맞단사스에 한인 40명 내외에 남녀 아동을 합하여 120명이 거주했으며, 한 주일 노동 값이 150원 정도였다. 한인예수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8년이 되던 그해 10월 23일에 터커 선교사의 주선으로 맞단사스 한인 감리교회가 조직되었다. 장영기가 목사로 안수를 받았고, 집사로 방경일, 이우식, 차희관, 고창덕, 태덕일, 호근덕을 선임했다. 그 후 양춘명이 성경 가르치는 집사로 선출되었다. ‘양춘명이 처음으로 성경을 강도하는데 목사 장영기가 강도상 상충으로 올라와 강도하러하여 올라가 강도하였는데 터커 선교사가 강도상 상충에는 목사의 좌석이므로 집사들이 올라가 강도하는 것이 불가하다며 다음부터는 내려가 강도하라고 말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사면청원을 제출하고, 교회집사 중 마귀가 있어서 목사를 미혹케 하여 죄를 짓게 한다는 자금지반의 언사로 터커 선교사와 교인들이 분개하며 제명할 뜻까지 있었다.’

1930년 4월, 장영기 목사의 모친 회갑연이 있었고, 이듬해 7월에는 장영기 목

회에서 기도와, 고창덕과 조덕중과 이세창과 함께 ‘안도산 선생의 사업을 잇자’는 연설과 위령 기도까지 했다. 그해 성탄축 하식에서 특별순서로 성경역사극이 있었는데 출연한 김보배, 김순덕, 이신실, 박선녀, 임경옥, 주미영, 주화영, 호갑순, 박동기, 박동흥, 임상옥, 호갑년, 권옥희, 박기순, 주근영, 주화영, 이봉태, 임봉만 등이 한인감리교회 교인이었다.

1939년 2월에 국민회 30주년 기념식에서 양춘명은 기도했다. 이듬해 성탄절은 양춘명 전도사의 사회로 성대히 거행되었는데 아동과 사보들에게 과자를 나누었고, 동포들에게 다과로 접대하였다. 1941년에 양춘명은 한인감리교회 전도사였다. 집사로는 이우식, 고창덕, 호근덕이 있었으며, 남녀 20여 명이 예배를 드렸다. 그해 8월 29일에 국치기념식이 있었을 때 양춘명이 기도순서를 맡았고, 사회 봉사담을 나누었다. 대한여자애국단 서기 임경옥의 생일잔치와 김명구의 딸 첫돌잔치가 있었던 그해 3월에 한인들이 노동하여 한인의 생사에 문제가 된 가운데서도 그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웅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 교회</p> <p>담임목사: 홍귀표</p> <p>주일 예배: 오전 11:30 주일 구제 및 기도회: 오후 1:00 주일 학교: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성경부 기도회: 수요일 밤 8:00 다민족 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4:00-7:00</p> <p>Tel. (773)902-1112 esfcros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키온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풍운</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벤넬교회</p> <p>담임목사: 백신종</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영):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www.bethelchurc.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ingham, MA 01948</p>
<p>안다옥교회</p> <p>담임목사: 강준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702)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p>	<p>알칸사 제자들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www.je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열린문교회</p> <p>담임목사: 유제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6</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백운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런온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환</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p> <p>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장호</p> <p>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536-6675, www.tacomacr.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p> <p>■ N.Y. :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p> <p>■ N.Y. :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p> <p>■ N.Y. :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p> <p>■ N.Y. :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p> <p>■ N.Y. :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41)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개혁신앙 목회자(The Reformed Pastor)” (11)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반대 4: 우리가 꼭 필요한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없이 끊임없이 이 일에 정신을 쓰다 보면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를 완전히 얽매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정한 대화도 나누지 못하게 할 것이다. 친구들과 만나 즐기지도 못하고 마음의 긴장도 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무례하고 심술궂은 자로 여기게 될 성이요 우리 스스로도 지쳐버릴 것이다.

-대답: 그 같은 반대의견은 육신이 그의 안일을 추구하여 내놓은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게으름뱅이는 “길에 사자가 있다”(잠26:13)고 한다. 또는 그는 추워서 재기질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필요한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시간을 가지면서도 이 일을

치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이 일을 장난처럼 행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일은 우리의 영에 활기와 자극을 불어넣을지언정 이를 소진시키지는 않는다. 우리가 우리 시간과 힘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무엇을 위해 쓰겠는가?

“소금도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눅14:34-35).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덧붙이셨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를 비하시킴으로써 자신을 비하시켰을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있을 더 큰 비하를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 5: 나는 목사들이 자신을 노예처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들이 열

과 행복에 거슬러 하지 않는 것은 위선자의 속성이다. 이런 의무를 노예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건은 기뻐하겠는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열성을 내는 것을 노예상태로 여기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겪을 비참함을 실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불행은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전에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대들은 주 안에서 죽은 사람에게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며 회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가? 은혜는 많이 활용할수록 증가되는 것이다. 이렇게 위대한 일에 태만하는 것이야말로 가증스러운 죄악이다.

-반대 6: 바울 사도가 살던

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은가?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치료책도 찾지 못한 채 죽음을 기다리며 의도적으로 세속적인 사람,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 경건한 삶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있지 않은가? 무식하고 둔하며 스캔들에 싸인 신앙고백자들이 너무나도 많으며 분열하고 비방하며 교회의 골칫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은가? 그런데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주 행복한 시대이며 개인적인 가르침에 대한 요청이 적으므로 그것을 태만히 해도 괜찮다고 변명할 수 있겠는가!

-반대 7: 만일 목사들에게 그와 같은 심한 규칙을 지키라고 하면 교회에 남아있을 목사가 없을 것이다. 어느 누가 그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택하려 하겠는가? 그것을 제

사역은 영에 활기와 자극 불어넣을지언정 소진시키진 않아 하나님은 선택하신 일꾼위해 필요한 것들을 친히 예비하심

할 수 있다. 목회는 하나님과 그에 대한 봉사를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고 육체적 쾌락을 멀리하는 직업이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다(갈6:8).

또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담음질하기를 향한 것은 것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 이로라”(고전 9:26-27). 그들의 일에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우리는 레크리에이션이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능한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시행해야 한다.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 건강을 그다지 많이 해

심히 설교하고 병자를 심방하며 다른 목회사역을 이행하면 때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가르침을 주도록 우리를 묶어 두어 우리 삶이 집에 되고 노예상태가 되도록 요구하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한다.

-대답: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겠는가! 죄인들이 죽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핏떡거리는 것을 보면서도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노예가 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신앙이 자신의 육신적인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또한 그것은 행복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호라고 값싸게 생각하여 육신적인 목적

시절은 지금보다 더 부지런해야만 했다. 교회는 이제 막 세워졌고 적은 많았으며 박해가 심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대답: 이와 같은 논박은 서재에 들어박혀 있어서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 제기하는 것과 같다. 우리 주위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의 육신이 하늘로 올라갔는지 땅에 남아있었는지도 모르며 그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였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은가!

우리 주변에는 무례와 방심, 그리고 호색에 빠져 있고 우리가 단상에서 있는 힘을 다해 설교하여도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말을 전

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양심의 고통을 느낄 것이므로 목사직을 피하려 할 것이다.

-대답: 여러분이 가혹하다고 말한 이 규칙들을 제정하고 부과한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그 규칙에 대해 침묵한다거나 그것을 잘못 해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나의 침묵이 형제들에게 어떤 구실이 될 수는 없다. 또한 목회자들의 공급에 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 임무를 부여하시는 분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시므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그의 법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수 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도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마8:20).

(10면으로 계속)

일상칼럼

변명해 박사
(아주사파신학대학교 교수)

새 마음으로

오랜만에 머리를 짧게 잘랐다. 코로나19에 한창 기승을 부릴 때 미장원에 갈 수 없어서 머리를 기르기 시작한 것이 일년반이 지났다. 늘 짧은 머리를 하고 있다가 머리를 기르니가 주변 사람들 몇 명은 짧아 보인다고 말했다. 인사로 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짧아 보인다는 말이 듣기 싫지는 않았다. 그런데 암으로 고생하던 한 친구는 긴 머리가 여성스러워 보이는게 하는데 전문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다시 짧은 머리를 하라고 말했다. 귀찮기도 하고 머리 자르러 갈 시간도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마침 교회사역의 일부로 온라인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타 주에 사는 조카가 등록을 했다. 세미나를 통해 배우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오랜만에 이모 얼굴도 보고 이모의 강연에 대한 피드백도 하고 싶어서 들어온 것 같았다. 세미나를 마치고 조카가 보낸 메시지는 우습게도 세미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모, 내일 당장 머리 잘라”였다. 사실은 짧은 머리가 좋다고 말했던 친구가 그 주 월요일에 세상을 떠나서 마음도, 몸도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다. 몸살이 난 채로 강의를 했더니 피곤해 보이고 머리까지 길어서 더 나이 들어 보인다는 것이다. “다음 주 세미나 때 이모 머리 잘랐나 볼거야”라는 조카의 잔소리도 있었지만 친구 장례식에 마지막 선물로 친구가 좋아하던 짧은 머리로 참석하고 싶었다. 그런데 몸살이 계속되는 바람에 장례식을 마친 후에야 머리를 잘랐다.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는 “그래, 짧게 자르니 좋네”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조카는 “이제야 우리 이모 같네” 하면서 짧은 머리에 한 표를 던진다.

아침에 머리를 감으려니 짧아진 머리가 훨씬 편하게 느껴지면서 머리 스타일에 대한 추억이 다가온다. 사십 년 전 미국에 와서 테네시 주 낙스빌에 살 때 남편과 나는 미장원에 갈 생각이 없었다. 시골이어서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미장원이 없었다. 돈도 없었던 짧은 영어로 미국인 미용사에게 어떤 스타일로 잘라 달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집에서 서로 머리를 다듬어 주었다. 하루는 남편이 내 머리를 다듬었는데 한 쪽을 자르고 나서 다른 한 쪽하고 균형이 안 맞다고 다른 쪽을 더 자르고, 또 다른 쪽이 더 긴 것 같다고 하면서 계속 자르다 보니 완전 균인 머리를 만들어 놓았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우스운데 할 말이 없던 남편은 “와우, 오드리 험볼트 같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대학시절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긴 머리가 기억에 남아 있었던지 남편은 내게 늘 머리를 기르라고 했다. 울방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긴 머리가 불편해서 짧게 머리를 자르고 오면 화가 나서 문을 광 닫고 방으로 들어가곤 했다. 오죽하면 우리 집에 다니러 왔던 오빠가 “나 원, 네 머리 네가 자르는데 왜 저러다니...” 하시던 생각이 난다.

짧은 머리를 좋아하던 친구도, 긴 머리를 고집하던 남편도 이제 이 세상에 없다. 그리고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코로나19도 서서히 수그러지는 듯 하다. 일년반의 기간은 당황스럽게 퍼져가는 바이러스 앞에 우리 모두가 한없이 무력함을 절절히 배운 시간이었다. 경제가 휘청거렸고 사람들은 마치 구약시대 나병환자를 대하듯 서로가 간격을 두며 살았다. 화장실 휴지나 클로락스 페이퍼, 손 세정용 알코올을 사려고 긴 줄에서 서서 기다려야 했던 시간도 있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우리 사회가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도 절대로 그 이전의 상태와 같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을 하고 뉴노멀 시대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다시는 온 인류가 고통을 당하는 이런 질병이 없기를 바란다.

코로나 기간 동안 알게 모르게 침체되고 우울했던 마음이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친구의 죽음으로 더 힘들었다. 이제 코비드 이전처럼 다시 짧아진 머리에 어울리게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 세상을 떠난 친구에게도 그간 작별을 고하기로 한다. “친구야, 네가 그렇게도 간절하게 더 살고 싶어 하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도록 할게. 그 날이 올 때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자.”

lpyun@apu.edu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원어/영어예배: 오후 2:00 영어/영어: 오전 5:30(월-금), 9:20(토) 영어/영어: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p>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영어/영어(영성): KDC, 링컨빌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계속해서 돌이켜 있는 우리의 동역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p>	<p>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14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30</p>	<p>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원어예배: 오후 2:00 영어/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S.A.복음화선교회 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9:30-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밖에도 영성회 3. 가정사역 4. 영성회 http://www.elp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온세례기도전담: 365일 24시간 온</p>	<p>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p>	<p>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 대예배: 오전 9:45 (본당) E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CM 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본당)</p>	<p>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수요일예배: “영성강화 세미나” 오전 9:30 오후 7:00</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목회서신

선택의 기준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스코틀랜드에서 온 의사와 함께 기숙사 룸메이트로 지내게 됐습니다. 하루는 내가 공부에 필요

한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동료 목사님으로부터 복사해서 가지고 와서 내 컴퓨터에 설치했습니다. 원본이 아

반문했습니다. “만약 경찰이 와서 이 프로그램 어디서 샀느냐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나는 주저 없이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지만 나는 ‘저작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과 양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경공부를 위해서 새 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서점에 문의를 했습니다. 어느 곳도 내가 찾는 교재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미국 서점에서 구입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는 동안 내 마음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서 교재를 몇 권 구입할까? ‘필요한 만큼 구

입할까? 아니면 한 권만 구입해서 복사해서 사용할까?”

여전히 갈등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하며 서점에 갔는데 책이 두 권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 후 한 권만 구입했습니다. 복사해서 쓰려고 한 권만 구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스럽지만 교재를 정리해서 만들어 나누어주자는 생각으로 한 권만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선택은 분명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관

점이지 아닌 세상의 통념이나 관습으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남들도 다 하는데 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대상 29:17상).

yosupbois@hotmail.com

인/터/뷰

ABC 교육위원 우수연

“부모들이 깨어 아이들을 잘못된 교육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세리토스 ABC 통합교육국 교육위원 우수연 위원은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에서 시행되는 교육이 친동성애와 비판적 인종이론(Critical Race Theory·CRT)의 영향권 안에 깊이 놓여있게 됐다며 부모들이 일어나 아이들을 이러한 영향권 안에서 구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는 것과 공립학교 시스템은 자녀들에게 치명적이라 그들의 교육을 위해 부모와 조부모들이 깨어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 언론보도와 교육위원 모임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든요.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투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 위원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는 이미 CRT가 침투해있는 교재가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교육이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수연 ABC통합교육국 교육위원

그러나 우수연 위원은 교육위원회 미팅이후 많은 중도파 민주당원들에게서 연락을 많이 받게 됐고 공화당 미팅에서는 봉변을 당했던 것에 대해 위로로 받게 됐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날이후 민주당원들에게서 많은 연락을 받았어요. 저보고 ‘내가 인종주의자가 아닌 걸 우

“디트로이트의 경우 친동성애에 교육을 시행하려 하자 이를 알게 된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출석참여를 보이콧했습니다. 20%정도의 학생들이 학교출석을 거부하게 된 셈이죠. 그로인해 학교재정의 20%가 줄어들게 되었고요. 학교예산의 20%가 줄어들어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게 됐습니다. 결국 친동성애에 교육이 중단되고 학교는 정상화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수업참여를 안하는 것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닌 학부모들이 학교교재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교육국에 자주 찾아가서 보수적인 교재를 선택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을 해야 하며 세크라멘토에 LGBTQ의 영향을 받은 교육과 교재사용을 금지하도록 편지를 보내는 운동을 시행하는 것도 좋은



본교캠퍼스

미드웨스트대학교 캘리포니아 사이트 오픈

음악 예술 리더십 대학원...M.M, DMA, Ph.D.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Dr. James Song 총장, 설립자)가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국(BPPE)과 연방 정부 인가기관의 인준을 받아 토렌스(Seaside)와 어바인 두 지역에 사이트(site)를 오픈했다.

캘리포니아 토렌스 Site(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에 오픈하는 과정은 음악석사(M.M), 박사 학위과정은 DMA, Ph.D.이며 본교 부설 코너스톤 & 아트 아카데미(Cornerstone Music & Arts Academy)와 수료(Certificate) 과정이 있다. 어바인 Site(240 Goddard, Irvine, CA 92618)에 오픈하는 과정은 MBA, Ph.D 리더십 학위과정이다.

본교는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목적으로 1986년 미국 중부 샌루이스에 설립됐으며 워싱턴DC, 달라스, 한국, 페루 등지에 Site를 두고 미 연방정부 교육부(USDE), 대학인준기관인 CHEA와 ABHE 인준을 받은 미국 정규 종합대학교다.

또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국방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예술대학원이 있다.

유학생을 위한 SEVIS 1-20를 발행하며 세계 어디서든지 영어 혹은 한국어로 소집특강 및 Online으로 학점취득이 가능하다.

국가 공무원 교육과 직무연수를 위해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USDS)으로부터 J-1 Visa를 위한 DS-2019를 직접 발행 허가를 받아 교환교수, 연구원, 미국 기관, 회사 등에 유료 혹은 무료 인턴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1-2년 연구 프로젝트를 갖고 미국의 주정부 기관, 주 의회, 카운티, 시청 등 공공기관과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 직무연수를 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의사, 변호사, 예술가, IT분야 종사자, 마케팅 분야, 목사, 선교사 등)들이 Midwest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MIRI)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 www.midwest.edu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usa@midwest.edu, 전화 (636)327-4645로 할 수 있다.

(기사제공: 미드웨스트대학교)

‘QT를 통한 시 창작교실’ 4명 수료

문화선교원 시전 제15회 시로 드리는 예배

문화선교원 시전(대표 이민미 전도사)이 10월 16일 오후 제 15회 시로 드리는 예배를 줌화상으로 드렸다. 이번 제15기에는 4명이 ‘QT를 통한 시 창작교실’을 수료했으며 주제는 ‘기도시로 동부와 한국, 인도에 사는 동인들이 참여했다.’

이날 정종원 목사(아이엠교회 담임)는 ‘이것들을 생각하라(빌 4:7)’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예술이 새로운 것을 탐닉하다보면 전이된 변종이 나타난다. 시의 탁월성과 진정성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예술에 앞서 진실한 삶에 그 진의를 두라”고 말했다.

시 영상과 함께 16명의 시낭송이 이어졌고 백승철 목사(시인, 문학평론가)는 로마서 8:28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전제로 시전이라는 그늘 아래 모였다. 하나님 뜻대로 부름 받은 사람이 모이면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역사다. 여러분은 하나님 목적에 의해 부름 받

은 작가이고 작가로서 온전히 성공한 셈이다. 시전을 통해 하나님이 성취하고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라, 그 선한 일이 바로 시전이 이곳에 존재할 이유다”라고 격려했다.

한편 이민미 시인은 “인본주의 문학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울곧게 신본주의 시로서 언어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시로 예배를 드려온 시전에서는 기독교인들까지도 언어를 정제하느라 관념어를 빼다 예수까지 빼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위험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생을 약화시켜 다원사상으로 가게 돼 ‘시’라는 우상을 형상화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오직 하나님중심 신본주의 시를 최우선으로 시편 151편을 이어가며 이웃사랑의 현대시로 나가기를 강조했다. ‘QT를 통한 시창작’교실은 내년 봄 학기에 개강 예정이다.

▲문의: (818)590-6469 이민미 전도사

교육위원이기에 항상 학교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많은 교육국이 진보적입니다. 교육역시 동성애에 대해 열려 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일하고 있는 ABC통합교육국은 보수적인 교육국이라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는 안전한 편이었습니다.”

공화당원인 유 교육위원은 자신은 공화당원이지만 교육국 자체가 특정정파에 치우치면 안 되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이기에 조당적인 자세로 일을 해왔으며 그 덕분에 민주당원들과도 많은 교류와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그가 최근 세리토스 지역신문과 페이스북에 인종차별주의자로 보도가 돼 주목을 받게 됐다. 그가 이러한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 9월에 있었던 세리토스지역 공화당 클럽에서 참석해 단상에서 발언을 한 것 때문이었다.

“9월 15일에 대면으로 있었던 클럽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6-70명 정도 모인 그 모임에서 교육위원에게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미국교육시스템이 친동성애와 CRT로 잘못 가고 있

유 위원은 공화당 클럽 모임이후 열렸던 9월 21일 교육위원회 모임에서, 15일 모임에는 왜 참석했느냐는 항의를 받았고 10월 4일 교육위원회 모임에서는 5명의 급진적인 민주당원들에게 교육위원을 사임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가 사임압력을 받은 이유는 자신의 사상과 교육관이 보수적이어서 그러한 압력까지 받게 됐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미국의 교육시스템이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잘못 가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의로운 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세크라멘토를 장악한 자들은 LGBTQ를 지지하기에 아이들에게 성정체성에 혼란을 주려고 합니다. 10대 시절은 성정체성이 확립이 돼있지 않은 시기거든요. 그리고 15-20세의 연령은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시기라 사회정의를 위해 관심이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BLM(Black Lives Matter)과 CRT가 매우 정의롭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실상은 사회주의 사상과 막시즘에 영향을 받은 것이거

리가 잘 아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자조지중을 설명했으며 동성애교육을 하는 교재를 보여주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했었어요.”

그는 민주당원들이 교재를 보고 많이 놀라했다며 해당 언론사와 몇몇 급진적인 민주당원들의 공격이 없었더라면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 교재의 문제점들이 수면위로 올라올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모임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유권자 중 동성애를 지지하는 비율을 20%정도로 파악이 되며 최소 50%, 최대 80%의 유권자들이 이성애에 입각한 교육을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소수의 목소리가 크기에 법안을 상정하는 정치인들이 소수의 목소리에 현혹이 됨으로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은 디트로이트의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크리스천스쿨 등 사립학교에 진학을 하게 하는 것과 홈스쿨링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것조. 하지만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와 같은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지속적인 관심으로 학교가 교육국이 되고 주의회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수연 교육위원은 세리토스 중심으로 아테시아와 하와이안가든, 놀웨이, 레이크우드, 롱비치 일부 등이 관할지역을 둔 ABC통합교육국의 교육위원이며 유성국 목사(GOSPEL-TO-ALL 전도센터)의 부인이다. “잘못된 교육에서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교육위원 모임에서처럼 저를 괴롭히려는 공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게 기도하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미래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게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준호 기자>

신앙상담

(5면에서 계속)

세금은 죄악박멸 냈지만, 이 두 가지는 목숨을 걸고 거절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황제송배 거부였습니다. 로마제국은 다신론국가였는데 광대한 땅을

통치하기 위해 로마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 모든 주민이 황제신상 앞에 모여 올리는 나팔소리에 맞춰 허리를 굽혀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황제송배는 십계명의 제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제2계명, “우상

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는 계명을 정식으로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요 왕이기에 그들은 황제송배를 거부했습니다. 제국의 입장에서는 말할 것 없이 반역이었고 용서 받을 수 없는 반국

가적 행위였으므로 기독교인들이 사형을 피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후에 기독교 복음의 능력 앞에 굴복했습니다.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교협 제 48회기 이취임식

뉴욕한인교회협의회 제 48회기 회장(김희복 목사) 및 평신도 부회장, 임실행위원, 제 38회기 이사장(김일태 장로) 이취임 예배가 10월 24일(주일) 오후 5시 뉴욕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279-1414

제 4회 뉴욕 목회자사모 세미나 영상

제 4회 뉴욕 목회자사모 세미나영상이 11월 7일(주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8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뉴욕피어선교회(41-29 163 St. Flushing)에서 열린다. 강사는 이상목 목사(이러리한인장로교회 담임), 진행은 장규준 목사(차세대 리더십), 준비위원장 김홍배 목사(뉴욕피어선신학교장), 특별기도 사역 이예스더 목사(인터내셔널사랑교회 담임) 등 사역자들을 위한 공동체가 주최한다. 협찬은 CTS뉴욕지부, 국민일보 뉴욕지부, 뉴욕피어선총회신학교.모든 식사가 제공된다.

▲문의: (646)361-6591(송금희 전도사), (646)266-0039(장규준 목사)

뉴욕선교로교회 설립 2주년 기념예배

뉴욕선교로교회(공동담임 김경수 목사 박병섭 목사) 설립 2주년 기념예배가 10월 31일(주일) 오후 5시 30분 본 교회당 (67-02 Woodside Ave. Woodside)에서 열린다. 캄보디아 비전센터 헌당 및 모노톰선교로교회 설립 감사도 병행한다.

▲문의: (718)640-4022, 490-6316

대화기술 워크샵

패밀리리치(원장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제 33기 대화기술 워크샵이 10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30분부터 10시까지(미동부시간) 온라인으로 열린다. 대상은 부부, 부모, 대화기술 강사가 되기 원하는 자로 수강료는 개인 150달러, 커플 300달러로 디스카운트 해준다. 교재비 20달러. 강사는 정정숙 박사.

▲문의: (201)242-4422

신임 회장 김희복 목사, 부회장 이준성 목사

뉴욕교협 제47회 정기총회, 감사 김영철 김재룡 목사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 47회 정기총회가 10월 14일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려 신임 회장에 김희복 목사, 부회장에 이준성 목사를 선출했다.

신임회장 김희복 목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주의 일 하겠다. 동포사회와 목회자, 평신도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한 회기로 멋지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파행 총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 속에 회장 문석호 목사는 회의를 시작하며 발언시간을 30초로 제한하고 회의를 빠르게 진행했다.

임원선거는 총 168명이 참가한 가운데(사전등록은 141교회 220명) 부회장 김희복 목사를 박수로 추대했으며 3파전을 벌인 부회장 선거는 3차 투표 결과 이준성 목사가 최종 90표를 받아 선출됐다.

선거는 선관위원장 이만호 목사가 진행해 1차 투표 이준성 목사 80표 김명옥 목사 33표 박태규 목사 47표, 2차 투표 이준성 목사 90표 김명옥 목사 36표, 박태규 목사 38표, 3차 투표 이준성 목사 90표 김명옥 목사 32표 박태규 목사 28표로 이준성 목사가 압도적 표차를 보였다.

평신도부회장 후보 이준범



뉴욕교협 제47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장로는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못해 이사회를 통해 확정하도록 했으며 평신도 감사후보로 백달영 장로가 선임됐다.

목사 감사는 4명의 후보가 현장에서 추천돼 최다 표를 받은 김영철 목사와 김재룡 목사가 선출됐다.

문석호 목사는 “급박한 위기에 우리 목회자들이 어디에 마음의 눈을 고정시키고 있는지 성도들이 어디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정직하고 진지한 답변을 할 수 있다면 목회의 미래는 뜻깊다 할 것이라며 세로 위지기를 요청하는 세상 속에서 기득권 유지와 자리다툼에 관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다하는 교협이 되기를 바란다”고 회기 마무리 인사말을 전했다.

신임회원으로 김경길 목사(뉴욕엘피스장로교회), 감사패

대에 교회 이해와 주일성수”, 평등법 해악설명회, 코로나19,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오하 생활수기 공모전, 희망콘서트 등을 진행했다.

또 특별혁신기획위원회(위원장 유상열 목사)를 구성하고 임시총회를 거쳐 헌법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개회예배는 김희복 목사 인도로 기도 김기호 목사, 설교 이정환 목사(직전 뉴저지 교협회장), 헌금기도 김경열 목사, 축도 박희소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정환 목사는 “우리의 말과 봉사의 근원이신 하나님”(벧전 4:10-11)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창조의 말씀이며 둘째, 회복과 축복의 말씀”이라며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셨다. 뉴욕교협은 미주 한인 교계의 장자 교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교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성가단 창단25주년 맞이 기념행사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팬데믹 속 단원들 모여 자축

뉴욕장로성가단 창단 25주년 기념예배

뉴욕장로성가단이 지난 10월 10일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 친교실에서 창단 25주년 맞이 기념예배와 자축행사를 가졌다.

단장 김재관 장로는 “25년전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뉴욕장로성가단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영광받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조촐하게 자축행사 할 수 밖에 없어 아쉬웠습니다만 다 음엔 모두 전담원이 동참해서 뉴욕장로성가단을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1부 예배는 김홍근 장로(서기) 인도로 기도 장세할 장로(부단장), 헌금특송 이애실 사모

와 정권식 장로(부단장)의 헌금기도 후 김바나바 목사(단장)가 “듣고 본 모든 것”(눅 2:15-2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는 송윤섭 장로 사회로 기도 박용기 장로, 축하 케익 커팅, 각 파트별 찬양경연 대회로 진행됐다.

정운문, 이승대, 이희상 장로의 솔로 찬양과 기악연주로 김진원 장로의 하모니카 연주, 김영재 장로의 트럼펫 연주, 정인국 장로의 트롬본 연주, 손성대 장로의 색소폰 연주 등이 있었다.

또 월남참전 공공자 신우회 중창팀 5명의 찬양과 아이노스 중창단 찬양이 있었으며 시상식도 열려 푸짐한 상품을 증정했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성가단)



WHF 스태프. 왼쪽부터 최원진 이사, 엔타노 리베라 회장, 길명순 이사장, 이강춘 이사, 서리미 이사, 최재복 이사.

입양아시민권 2명 추가, 4명 인터뷰 대기

월드허그파운데이션, 푸드박스 등 배부 자격 획득

입양아 시민권 받기 운동을 주 사역으로 하는 월드허그파운데이션(WHF, 이사장 길명순, 회장 안토니오 리베라)에서 지난 8월, 2명이 시민권을 받았다.

노스캐롤라이나 거주 63세(여) T.S.는 14일에, 버지니아 거주 64세(남) K.W.는 27일에 각각 시민권을 받았다.

길명순 이사장은 “입양아들의 시민권 신청은 케이스마다 다르다”며 “법법행위가 있으면 기록을 모두 말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서류진행은 6개월이면 되지만 거의 2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길 이사장은 “이번 2명도 거의 2년 정도 걸렸는데, 입양아 자신도 시민권 신청에 확신을 갖지 못해 진행이 중단되기도 해서 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WHF가 추진한 시민권 받기는 현재 4명이 인터뷰 대기 중으로, 지금까지 총 7명이 시민권을 받는 성과를 올린 셈이다. 시민권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일인당 1만 달러에서 1만2천 달러 정도다. WHF는 이

비용을 모두 전담하고 있다. 길 이사장은 리베라 회장이 합류한 후 WHF 사역이 확장되고 후원도 확대됐다고 소개했다.

WHF는 팬데믹 기간 동안 푸드박스(트와이스, 마스크, 세정제 등을 직접 배부하는 기관이 돼 한인 사회에 대량으로 나눔을 진행했다.

리베라 회장은 WHF 스태프(이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노인아파트 신청, 직업 교육 및 알선, 간호사 자격증 취득)들을 소개하고 한 인사화와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리베라 회장은 가족 중에 한국전쟁 참전용사도 있어 한국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길명순 이사장은 “입양아를 보낼 때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지금은 잘 살고 있으니 정부 차원에서 입양아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한인 교계의 재정적인 후원과 아울러 기도와 관심을 당부했다.

▲후원문의: (646)254-2992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 건축바자회가 주차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퀸즈장로교회 연례 건축바자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연례 바자회가 10월 16일 주차장과 지하 친교실에서 열렸다.

팬데믹 가운데 의류나 타 품목을 자제하고, 성도들이 준비한 각종 음식들을 중심으로 “맛있는 토요일을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홍보 문구를 제작해 진행했다.

특히 다민족 성도들도 참가해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건축을 준비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퀸즈장로교회는 매년 봄, 가

을로 선교바자회를 개최해왔는데 현재 건축 중인 관계로 지난 2년간 건축바자회로 진행해오고 있다. 본 교회당 건너편 파킹장으로 사용하던 공간에 차세대와 다민족을 위한 예배당 건축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다.

퀸즈장로교회는 한국어 회중 외에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회중들이 한 지붕아래 예배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 건축바자회가 주차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소그룹 집단상담 서포트 그룹 진행

뉴욕나눔하우스미주한인노숙인 쉼터 뉴욕나눔하우스(대표 박성원 목사) 입실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소그룹 집단상담 모임 서포트 그룹이 진행되고 있다.

두려움과 절망감 등의 정신적 고통 경감을 위해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모임에서는 함께 이야기하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가고 문제에 맞설 용기를 갖게 되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은 철저한 비밀유지가 원칙이며 고민을 토로했던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서

포프 그룹에 지속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과 더불어 서서히 현실과 맞설 용기를 갖게 됐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또한 신뢰하는 생각과 감정의 표현으로 소통 및 관계 기술 개선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 경우도 많고.

진행자는 나약칼리지 교수로 뉴욕 청소년센터 등에서 상담해 온 정신건강 전문 상담가이자 레크리에이션 치료사인 이수일박사다.

▲연락처: (718)683-8884 (기사제공: 나눔하우스)

뉴저지교협 부회장 후보 등록 공고

뉴저지교협(회장 고한승 목사) 선관위원회(위원장 윤명호 목사)가 부회장 후보를 등록 받는다.

지난 9월 30일 열린 뉴저지교협 제35회 정기총회에서는 부회장을 선출하지 못했으며 선거 무효 논란이 있었다[본지 제1845호 10면 참조].

이후 35회기 회장으로서 선출된 고한승 목사는 새롭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선관

위는 ‘목사 부회장 후보’ 등록 절차를 시작한다고 공고했다.

선관위는 위원장 윤명호 목사, 총무 김동권 목사, 서기 이웅일 목사, 그리고 이사장 김영동 장로로 조직됐다.

등록마감은 11월 15일까지이며 등록서류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서 1통, 스스속교단 추천서 1통, △이력서 1통 △사사진 1매.

(유원정 기자)

속”(은2:2)에 가두신 후 끌고 오실 것이다. 의무를 충성스럽게 행할 수 없으므로 그 일을 던져 버리겠다는 것은 결국 보잘것없는 평범일 뿐이다.

애초에 우리가 세상적인 일과 영원한 일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인식하고 그리스도로 인해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지 알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히11:1)인 믿음을 소유하고 감각이 아닌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면 이 모든 반대들은 쉽게 풀렸을 것이다. 그리고 혈과 육의 이익에 대한 부르짖음은 어린 아이 혹은 감각을 상실한 자들의 투정쯤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우리가 양들의 사정을 잘 알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 알게 된다. 또 무지하고 완악한 죄인과 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 한 시간 연구한 만큼의 설교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강조하고 어떤 것을 반박해야 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hyojungyoo2@yahoo.com



복음장로교회 이광형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마치고 손세말은이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 앞줄 가운데가 이광형 담임목사)

말씀중심으로 승리하는 교회되라!

복음장로교회 이광형 담임목사 위임예배

복음장로교회 이광형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남가주노회(노회장 박용일 목사) 주관으로 17일 오후 2시에 열렸다.

이광형 목사는 “부족한 저에게 담임목사라는 거룩한 직분 허락해주셨다.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목사가 되도록 하겠다”며 “주님께 말씀하신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 기도 보태주셔서 하나님 뜻이 이뤄지도록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임국장 박용일 목사(남가주노회 노회장) 집례로 열린 위임식은 목사 및 교인의 서약, 위임기도, 공포 위임패 증정 등으로 이어졌다.

이어 정평욱 목사(남가주노회 증경노회장)가 권면했으며 김병학 목사(남가주노회 동부

시찰장)가 축사, 이광형 목사가 감사한 후 복음장로교회 게스트 마네 중창단이 축하했다.

한석호 목사(남가주노회 회록서기) 인도로 열린 1부 예배는 이동진 목사(남가주노회 부노회장)가 기도하고 복음장로교회 찬양대 찬양후 박용일 목사가 ‘승리하는 복음장로교회’(계2:8-1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용일 목사는 “본문에서 책망 받은 교회와 칭찬받은 교회가 있었다. 책망 받은 교회에 대해서 주께서는 회개하라고 하셨다. 회개만이 살길이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이 회개다. 죽을 때까지 이길 때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복음장로교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박용일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나성영락교회 KPCA 교단탈퇴 결의

10일 공동의회에서 총 894명중 87% 찬성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가 소속된 해외한인장로회(KPCA)를 탈퇴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10월 10일 오후 3시 열린 공동의회에서 교단 탈퇴 건에 관해 총 894명의 투표자 가운데 찬성 780표, 반대 114표, 기권과 무효 11표로 87%의 찬성을 얻어 교단 탈퇴안이 통과됐다.

나성영락교회는 최근 일부 신도들이 담임목사와 사무장로 노회 고발사태를 계기로 교단 탈퇴를 추진해왔다. 일부 교인들이 노회에 담임목사를 고발한 이유는 교회의 장학기금 유용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동의회가 열리는 날 KPCA는 수습전권위원회가 사태를 수습하고 교단의 행정지시를 교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파견했지만 교회 진입을 막는 교인들 때문에 공동의회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교단의 대리 당회장으로 임명된 김인식 목사와 총회 사무총장, 서노회 임원 5명 등 총 7명이 현장에 파견됐으나 진입을 거부당한 것이다.

이날 교회에는 보안요원이 배치돼 있었고 외부인들의 교회당 출입은 제한됐다.

(정리: 박준호 기자)

총회 전권위원회는 지난 8일 행정지시를 통해 김인식 목사를 대리당회장에 임명하고 나성영락교회 당회가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또 KPCA 전 총회장들은 9일 나성영락교회 사태와 관련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가 열려서는 안됩니다’란 교우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일간지 광고를 통해 발표하기도 했다.

호소문에서 전 총회장들은 “우리 해외한인장로회는 1976년 나성영락교회를 섬기셨던 김계용 목사님과 함께 미국 내에서 시작된 이래 해외한인 교단 중 최대교단으로 발전해왔다”며 “10월 10일 예정되어 있는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는 개최하면 불법이 된다. 헌법이 규정한 평화적인 절차를 따라 모두 함께 손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호소문은 전 총회장 김창길, 김대순, 한세원, 허영진, 김인식, 김재동, 강대은, 호성기, 김종훈, 유영기, 박성규, 이기성 목사님과 전 부총회장 장로 백원길, 이광도, 김대영, 김희림, 박형주, 한기하, 한광호 장로들의 이름으로 발표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나성영락교회



생명의전화 창립 23주년 기념 감사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상처 입은 동포들 위로하며 지켜온 자리...

생명의전화 창립 23주년 기념 감사예배

생명의전화(원장 바다윗 목사) 창립 23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16일 오후 3시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열렸다.

바다윗 목사는 “강산이 두 번 바뀌고 3년이 지난 23주년을 맞이해 천년을 하루같이 전화기 앞에 앉아서 가슴조이며 전화를 지 너머에서 흐느끼며 말을 잊지 못하는 상처 입은 동포들의 한을 위로하기 위해 자리를 지켜온 헌신적인 상담봉사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생명의 전화사역으로 인해 이민사회에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바다윗 목사 인도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한기현 목사(큰빛교회 담임/제8기 상담봉사원)가 대표기도 했으며 김춘사 권사(제23기 상담봉사원)가 성경봉독, 오위영 목사(위대교할 지휘자, 월드미션대학교 교수)가 특별찬양했다.

이어 황의정 목사(둘로스선교회 담임)가 ‘경청의 기적(사6:1-8)’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며 백지영 목사(남가주목사회 증경회장), 진진호 목사(남가주목사회회장)가 축사했다.

그리고 20년간 근속 상담봉사원 조정심(제5기 상담봉사원)에게 감사패 증정, 300시간 상담봉사원 박종갑 목사(20기)에게 감사장 및 메달을 수여했다.

이날 예배는 이태환 목사(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 회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원하트미니스트리와 동역하게 된 찬양사역자 허지에 간사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선교특별집회에서 최재형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선교특별집회

이연예권사장학금 수여식도...37명에 각1천불씩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 한의준 목사) 선교특별집회가 8일부터 10일까지 열렸다.

10일 3부 예배시간에 열린 집회는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한의준 목사 사죄로 시작, 2021 이연예권사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대학교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장학금 수여식엔 37명에게 각 1000달러를 수여했다.

이성일 권사는 “장학금 수여식을 할 수 있게 은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연예권장학금은 75년 이민 와서 6명의 담임목사를 섬기면서 불우한 교인들과 목회자들을 위해 평생 신앙으로 몸 바친 이연예 권사가 3년 전 소천하면서 유가족들이 장학기금을 마련해 실시해오고 있다. 그동안 45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소프노로 성가대에서 봉사했으며 어려운 교인들에게 밥을 사주며 타의 모범을 보였다. 부족하나마 남편 된 제가 목사님과 상의해서 장학회 설립했다. 내년에도 장학금수여식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현순 권사가 성경봉독했으며 성가대 찬양이 있었다. 이날 최재형 목사(전 필리핀선교사)가 ‘우정과 선교’(요15:13-15, 행16:4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최재형 목사는 “선교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는 겸손히 이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선교란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로 가도록 하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들과 함께 소통하며 복음을 이해해나가는 것이다.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우정을 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우정의 선교는 일방적이고 대상을 극복하고 이웃들과 늘 함께하는 선교”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헌사했으며 어려운 교인들에게 밥을 사주며 타의 모범을 보였다. 부족하나마 남편 된 제가 목사님과 상의해서 장학회 설립했다. 내년에도 장학금수여식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한의준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다”고 말했다.

정현순 권사가 성경봉독했으며 성가대 찬양이 있었다. 이날 최재형 목사(전 필리핀선교사)가 ‘우정과 선교’(요15:13-15, 행16:4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최재형 목사는 “선교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는 겸손히 이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선교란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로 가도록 하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들과 함께 소통하며 복음을 이해해나가는 것이다.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우정을 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우정의 선교는 일방적이고 대상을 극복하고 이웃들과 늘 함께하는 선교”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헌사했으며 어려운 교인들에게 밥을 사주며 타의 모범을 보였다. 부족하나마 남편 된 제가 목사님과 상의해서 장학회 설립했다. 내년에도 장학금수여식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한의준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 지역 예배 부흥 기대

원하트미니스트리, 허지에 찬양사역자와 동역

Oneheart Ministry(대표 피터박 목사, 이하 원하트)는 산하 레이블 프로덕션인 Label Oneheart를 통해 찬양 사역자 허지에 간사와 동역하게 됐다고 밝혔다.

허지에 간사는 남가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싱어송 라이터이자 예배 인도자로, CCM 찬양과 대중음악을 넘나들며 다양한 활동을 해온 아티스트다. 이 동역은 그간 원하트의

피터박 목사와 허지에 간사 사이의 꾸준한 비전 셰어링을 통해 실현됐다.

피터박 목사는 “소중한 동역의 기회를 통해 남가주 지역의 예배 부흥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실력 있는 찬양사역자가 더 크게 세워지는 좋은 기초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하트는 현재 허지에 간사와 함께 미주 한인교회와 한국교회에서 널리 불리어

서부교계 게시판

소망소사이어티 자원봉사자 모집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윤분자 장로)에서는 소망 LA지부(3030 W. Olympic Bl.#217, LA)에서 2021년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을 28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하며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소망의 미션과 비전, 활동영역 및 자원봉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소개 및 자원봉사 경험 나누기의 시간을 갖게 되며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봉사자들은 소망케어교실(치매환자교실), 사무실 행정 및 사무 지원, 각종 자원봉사 활동 및 행사 지원 등의 영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된다.

▲문의: (213)908-5034

원하트미니스트리 심플워십

문화사역단체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박 목사)는 23일(토) 저녁 7시 이웃을 돕는 찬양예배로 다섯 번째 심플워십을 개최한다. 뉴송 스튜디오(1521 E Orangethorpe Ave. Suite A 2F, Fullerton 92831)에서 드려질 심플워십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Youtube 'Oneheart TV'를 통해 실시간 방송된다. 이날 헌금은 독거노인을 돕는 코이노니아선교회를 후원한다. 이번 심플워십에는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4명의 찬양사역자 허지에, 박지은, 이정희, 종유석이 함께 찬양집회를 인도한다.

▲문의: (213)703-7663

담임목사 청빙

유타주 Salt Lake City에 위치한 미 남침례교단 소속 유타한마음교회(Utah Unity Church)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 요건은 1.미남침례교단에서 인정하는 정규 신학교의 신학대학을 졸업 또는 남침례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미국 체류에 결격사항이 없는 자, 2.미남침례교단 소속이거나 남침례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이민목회 경험 또는 전임경력 있는 이중언어(한국어, 영어) 설교가 가능한 자 △제출서류는 1.이력서(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명시해야 함), 2.학위증명서 및 목사안수증명서, 3.본인의 구원 간증문과 목회계획서 및 비전서, 4.전임 목회 경험담을 포함한 본인 그리고 가족 소개서, 5.최근 설교(동영상 또는 음성) 2편, 6.추천서 최소 2부(1부는 최근 사역지 목사추천서, 나머지는 목사 추천 또는 교인/성도 추천 가능).

▲문의: search@utahchurch.org



에피포도 제 23회 시상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제25회 에피포도예술상 수상작가 발표

정미셀, 김중미, 강영혜, 유영애 최종 선정

에피포도예술인협회(대표 백승철)에서 주관하는 제 25회 에피포도예술상 수상작가로 정미셀, 김중미, 강영혜, 유영애씨가 최종 선정됐다.

문학상 시 대상 수상한 정미셀(엘에이, 미주시학대표) 시인의 작품은 ‘꽃의 문을 열다’로 “사물을 보고 느끼는 정서의 한계를 조각하듯 행간의 간격, 시어를 다듬어 삶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인문학상 시, 김중미(시전회원, 버지니아)의 수상작품 ‘밤눈(외 3편)’은 시어를 아끼고 다듬어서 함축 시기는 문학적 역량을 인정받았다.

신인문학상 수필, 강영혜(아름다운여인들의모임 회장, 샌프란시스코)는 한국일보 ‘여성의 창’에 칼럼을 연재했던 칼럼니스트

로 수상작품 자전적 ‘희망의 섬’은 모든 환경과 살아가는 일상이 글이 되고 리듬을 만들어내는 솜씨가 이미 시인으로 등단한 시적 감수성이 녹은 작품으로 심사위원회의 평을 받았다.

아름다운 노랫말 에피포도음악 작사에는 유영애(시인, 한국) 작가가 선정됐다. 특별히 이번 수상하는 ‘시래기’는 한국 전통의 정서를 담은 가곡으로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에피포도예술인협회는 백승철 시인이 199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폭지글로 시작한 세계적인 종합예술단체다.

수상 작품집 출판기념과 시상식은 11월에 열릴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714)907-7430으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에피포도예술인협회)

고 장성군 집사 천국환송예배

고 장성군 집사 천국환송예배가 글렌데일 포리스트로 메모리얼파크에서 12일 오후 1시30분에 열렸다. 이중수 목사 집례로 열린 이날 예배는 신승훈 목사(주님의 영광교회)가 기도했으며 이중수 목사가 디모데후서 4장6-8절을 설교했다. 이어 임윤희 집사가 추모가를 불렀으며 손너 니콜 자매가 추모사를 했다. 이날 예배는 이중수 목사 축도로 마쳤다.

고 장성군 집사는 1939년 6월 28일 황해도 해주에서 부친 장두현 집사와 모친 강은영 집사의 3남1녀중 장남으로 출생했으며 1964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도미 의류업을 하며 베니스비치 한인상의 회장을 지내며 한인 경제 성장에 기여했고, LA평통 부회장과 LA

한인회부 이사장, 재미성군관대 동문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고 장성군 집사 장례식 2014년 LA 시의회에서 한인타운 웨스턴과 8가 교차로가 ‘장성군 스퀘어’로 명명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장성군 여사, 장남 원페밀리교회 담임이었던 고 장경일 목사(자부 리사), 차남 장동일(자부 세라), 삼남 장성일(자부 헬레나), 손자 윌리엄, 브랜든, 앤드류, 데릭, 크리스, 아론, 손너 니콜이 있다.

(박준호 기자)

‘99명 상한선’ 없었지만... “종교시설에만 유독 엄격”

정부 거리두기 완화 교계 반응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방역 수칙을 일부 완화한 내용을 담은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나온 거리두기 지침에 지역교회들은 마지막까지 방역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면서도 종교시설만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역 당국을 두고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7일 “이번 거리두기 핵심은 백신 인센티브”라며 “원칙에 따라 교회도 철저히 방역을 지켜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 당국에 종교계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는 문체부 종무실이다. 지난 15일 방역 당국이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안은 접종 완료자의 참여 범위를 확대했고 이를 종교시설에도 적용했다.

4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은 예배 등 종교활동을 할 때 예배당 수용 가능 인원 중 10%만 참석할 수 있었다. 다만 99명이라는 상한선을 뒀다. 조정안은 99명 상한선을 해제해 예배당 크기에 따라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10%

까지 참석하도록 했다. 1만석 규모의 교회엔 10%인 1000명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접종완료자만 모여 예배를 드린다면 4단계 지역에서도 최대 20%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3단계인 비수도권에선 기존 20%를 유지하되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30%까지 예배 참석이 가능하다. 각종 소그룹 모임과 식사, 숙박 금지는 유지한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는 18일부터 2주간 시행된다.

정부 발표 직후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총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은 논평을 내고 “종교시설과 유사한 공연장 등과 형평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종교시설엔 과도한 제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월말에 발표될 위드 코로나 지침에서는 종교시설에 대한 별도의 원칙을 적용하지 말고, 다중시설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시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교회들도 종교시설에만 유독 엄격한 정부의 방역수칙에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경

기도 안양 이억희 예담교회 목사는 “99명 제한을 없앤 건 100석 안팎인 작은 교회에는 큰 의미가 없다. 이번 조정안에서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서 “한국교회 대표성을 가진 이들이 작은 교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부에 정당한 요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소속 30여교회, 120여명의 성도들은 18일부터 열흘간 시청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행정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갖는다. 1인시위를 계획한 서울 구로구 아홉길사랑교회 김봉준 목사는 “우리는 정상적인 예배 회복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교회가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신평식 한교총 사무총장은 “대형교회의 경우 주일예배를 3-5부로 나눠서 드리고 있다. 이 중 한 차례 예배를 백신 접종 완료자만 드리면 20% 인원까지 참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7대 종단은 ‘정부-종교계 코로나19 대응협의회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부 지침이 바뀔 때마다 사전 협의하고 있으며 종교단체들의 개별 의견도 받고 있다”면서 “방역 당국은 물론 지난 13일 공식 출범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도 종교계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 조치를 적용해 코로나가 확산하지 않게 하려면 한국교회가 얼마든지 감수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영길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정부가 또다시 예배를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일반 식당, 카페처럼 교회 식당, 카페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 지난달 코로나19 안전신고는 1만4885건 제한을 풀었다. 한국은 60.7%인데도 여전히 예배당 인원을 10%, 최대 99명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더이상 예배 인원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교회에 엄중한

“한시적 영상예배, 공예배 대체 않도록 주의”

예장고신, 신학자 연구 영상예배에 관한 보고서 채택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이 영상예배에 대해 “한시적 차원의 영상예배가 공회로 모인 공예배를 대체하는 예배 형태로 자리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따르면 예장고신은 지난달 열린 제71회 정기총회에서 “코로나19 사태 속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되, 방역 수칙 범위 안에서 최대한 개인보다는 가정 등 소그룹 단위로 예배에 합당한 복장과 자세를 갖추 공회로 모여 드리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예장고신은 지난해 총회 때 올라온 ‘영상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바른 규정 청원 건’에 대해 1년간 교수회에 맡겨 연례로 자리 잡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보고서에 “예배에서 영상매체 사용을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효과를 조심스럽게 늘 점검하고, 지나치게 거기에 의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는 동안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속한 교회 영상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리기도한 자신이 선호하는 설교자, 찬양팀 등을 찾아 인터넷 공간을 해매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런 행위가 반복될 때, 성도들은 예배 소비자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고, 나아가 자신을 예배 판단자의 위치에 세우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예배자가 아닌 시청자로 자리매김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했다. 교수회는 공예배의 중요성을 최대한 강조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한시적 조치인 영상예배를 없애거나 극히 제한된 상황 속에서 최소한으로만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차별금지법 국회통과 적극 막아달라”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김기현 원내대표에 요청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상복 목사와 전용태 장로, 상임대표회장 이수훈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등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와 만났다(사진).

이들은 김 원내대표에게 차금법 반대 시민공청회에서 모은 교계와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등은 지난달 9일부터 전남 인천 서울 등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차금법 반대 공청회를 진행했다.

김상복 목사는 “법이 통과되면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시는 동성애를 가르치고 설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며 “전통적 기독교인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전용태 장로는 “차금법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도덕적 측면에서 반대할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다”며 “동성애자의 자유

와 그를 반대할 자유도 함께 보장하는 올바른 합리적인 성인권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했다.

또 전국 17개 광역시도 성시화운동본부와 한국기독교공정정책협의회(기공협·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등 5만여 한국교회는 다가올 대선 등에서 올바른 성 인권 정책을 펼치는 당에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영종 전남출산운동본부 이사장도 함께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교회의 돌봄교실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도 전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조만간 경기도와 충남 지역에서 시민공청회를 재개할 예정이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16%, 예배 못 드려

보건복지부 1만6403곳 조사, 지난해부터 교세 현격 줄어

코로나 여파로 교회의 16%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당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점검인력 7411명을 투입해 1만6403개 교회를 현장 조사했다. 조사 결과 2693곳(16.4%)이 예배를 미실시했다. 예배를 드린 교회 중 1만3355곳(81.4%)이 현장예배(99명 이하 참여), 351곳(2.1%)이 비대면예배를 하고 있었다.

한국교회총연합에 소속된 교회가 5만7000개인 것을 고려할 때 16%인 9000여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계에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대부분 작은교회임을 감안하면 수천개

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동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13일 “정부가 지난해부터 비대면예배를 요구하면서 수천개의 작은교회가 문을 닫았다”면서 “그나마 교계 노력으로 현장예배를 제한적으로 확보했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코로나 2차 백신 접종률이 55%인데도 수 개월 전 예배당 인원 제한을 풀었다. 한국은 60.7%인데도 여전히 예배당 인원을 10%, 최대 99명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더이상 예배 인원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교회에 엄중한

자율성 보장·지원 확대 한목소리

기독교학교교육연, 기독교대안학교 등록제도입 앞두고

내년 1월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도입을 앞두고 기독교대안학교들이 교육부에 자율성 보장,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달 2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교육기관의 의견을 들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지난 2일 발표한 기독교대안학교 실태조사서를 토대로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12일 교육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박상진 소장은 13일 “시행령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아 시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며 “교육의 자율성이 보장되면서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확대될 수 있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시행령(안) 3조 2항의 등록 가능한 대안교육기관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안)은 학교 시설과 관련 학습에 ‘적합한 여건’을 갖춰야 한다든가, 등록기준에 있어 ‘대안교육기관 등록은

영위원회에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한 시설’ 등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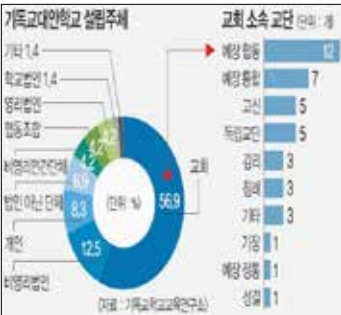
교사 기준 면적도 시행령(안) 2조 1항은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가 대안학교’의 면적을 적용했다. 의견서는 대안교육기관들이 초·중, 중·고, 초·중·고 등 통합형이 많아 초, 중, 고로 나누는 건 무리가 있다고 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기독교대안학교가 등록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기준 전일제로 운영되는 기독교대안학교는 총 313개로 5년 전보다 48개 늘었다. 눈길을 끈 것은 313개 중 288개 미인가 상태라는 점이다. 전체 기독교대안학교 중 92%가 등록 대상이라는 얘기다.

조사에 참여한 학교들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만족하면서도 불안감을 드러냈다.

응답자 98.6%가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법안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만족’이 11.4%, ‘만족’이 42.9%였다. 등록 예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가 31.3%, ‘긍정적 검토 중이다’가 37.3%였다.

그러나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우려 이유로 ‘교육과정 자율성 제한’이 4.10%(복수응답)로 가장 많이 꼽혔고 과도한 시행령(3.71%), 미등록 학교제재(3.66%)가 뒤를 이었다.

디모데학교 백승엽 교사는 “법제도 안에 들어간다는 건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장점과 함께 종속된다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소장은 “교육청 감독 안에서 이뤄지니 충분히 가능한 고민”이라며 “통제를 최소화하려면 기독교대안학교 등 연합체들이 교육청과 교육감을 상대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대 박윤배 교수는 “시행령을 보면 등록된 학교에 대한 지원 내용은 없다”고 평가했다. 등록제가 기독교교육을 제한할 수 있고 이는 명백한 종교탄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오늘 개혁교회가 길을 잃지는 않았는가”

교회건강연구원·한국교회싱크탱크포럼, 손봉호 정성진·최식 목사발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교회건강연구원(이사장 정연철 목사)과 한국교회싱크탱크는 1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종교개혁, 그 불꽃을 다시 점화하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정연철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개혁운동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공동 작풍이지 한 개인의 업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한국교회는 개인기는 강점이지만 팀웍이 약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우리 민족 전체로나 한국교회가 당면한 현실적 모순들을 과감히 개혁하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운명을 창출해 나가려면 팀웍의 문제, 옳은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운동성을 길러야 한다”고 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종교개혁을 다시 생각하다’는 제목으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공헌을 당시 천주교회에 상실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한 것을 꼽았다.

손 교수는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자들만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제대로 순종하는지 의문”이라며 “성경과 종교개혁의 정신에 따라 구제와 선교에 헌금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한국교회 지도자

와 교인 일부는 정치적 이념에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교계와 사회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배금주의 못지않게 극단적인 이념 편향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그네의 위상과 오직 성경의 종교 개혁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개혁을 다시 시작하다’라는 주제로 발표한 최식 다산중앙교회 목사는 목회환경의 급변과 오늘의 상황을 설명하며, 다산중앙교회는 개혁 사상인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말씀 회복’으로 시작하고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최 목사는 ‘개혁자들의 중요 관심사는 말씀의 회복이었고, 이것은 새로운 교회관의 핵심이었다. 말하자면 개혁자들의 교회개신의 핵심은 말씀의 권위 회복에 두고 설교를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했다. 즉 설교는 교회 개혁과 교회 건설의 중요한 도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중은 설교의 바른 선포를 위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크로스로드 이사장 정성진 목사는 ‘종교개혁을 다시 주문하다’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 목사는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의 공공성 회복’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며 “그것은 신앙공동체가 지녀야 할 공동체성과 사회적 연대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축복주의, 개교회주의, 성장주의, 이기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공교회성을 상실하고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종교가 되고 있다. 그것은 한국 기독교가 성직자 등 특정영역의 사유물로 전락하고, 민족에게 희망을 주던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을 잃어 버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라고 평했다.

그런 사례로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상실은 교회를 사유화 시키고 이단화시키고 사이버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이장형(백석대) 임창섭(고려대) 교수는 코로나19가 주는 메시지를 깨닫는 한국교회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한국교회의 왜곡된 직제와 직분 개혁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위기는 사회에 영향력을 잃어가고, 병든 시대를 고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영적 감화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교회건강연구원원은 다음 달 말 2022년 기획특회 사역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독교인 40.5%가 기본소득 찬성

“하나님의 땅에서 얻어진 소득 공유돼야”

기독교인 40% 이상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신학자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제시하며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땅에서 얻어지는 소득은 모든 이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연구재단·연세대 후원으로 꾸려진 기본소득 공동연구팀(책임자 정미현 연세대 교수)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신

학과 사회과학의 학제 간 연구’ 국제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으로, 대선후보를 비롯한 많은 정치인이 관련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연구팀이 지난 6월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0.5%가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했고 26.4%가 반대했다. 29.8%가 ‘중립’을 선택했고 3.3%가 ‘모르겠다’고 했다. 찬성 근거(중복 응답 가

능)로는 ‘최소한의 기본생존권 보장과 소득재분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가 76%로 가장 많이 꼽혔고 ‘복지 사각지대나 상대적 박탈감이 없기 때문’이 55.6%였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도덕적 해이 및 근로의욕 저하 발생’(75.4%) ‘세수에 대한 부담 증가’(69.7%) 등이 언급됐다. 응답자 절반 이상(51.3%)이 가장 적당한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으로 ‘매월 30만원 미만’을 답했다.

또 신앙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할수록 기본소득을 더 많이 반대했다. 강한 보수, 약한 보수, 강한 진보 등의 순서로 갈수록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의견이 줄었고 찬성 의견이 늘었다.

선교의 창 (180)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격조건

바야흐로 우리 조국에서는 대선의 계절이 찾아왔다. 유력 후보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며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일찌감치 앞서나가는 후보들이 있지만 정치는 생물이 아니고 하지 않았던가. 판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은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고스톱과 정치판은 비정하다. 2등의 성격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다. 1등이 싸움이 한다. 아무튼 제 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헌법 6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정말 어깨가 무거운 자리다. 5,178만 명(2020년말 기준)의 백성과 약 8천만 명의 겨레를 품에 안고 이끌어 가야 한다. 더구나 우리 조국은 핵을 가진 북한과 더불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치열하게 부딪치는 곳이다. 따라서 투표권자는 이념이나 지역이나 당파 색을 멀리한 채 신성한 주권을 행사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하며 좋은 후보를 위해 간접적으로라도 응원을 해야 한다. 조국이 융성하지 못하면 선교사나 이민자들도 기댈 언덕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1. 통치 철학과 비전이 있는 사람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한다. 이처럼 대통령의 자리는 막중하다. 분명한 통치철학과 비전이 없이는

2. 실력 있고 준비된 사람

탈무드에는 지도자 선택을 위한 뱀의 비유가 나온다. 뱀의 꼬리는 머리에 "어째서 나는 언제나 너의 뒤에만 붙어야 하지?" 라고 불평했다. 그러자 머리가 대꾸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역할을 바꾸어보자." 이에 꼬리는 기뻐서 앞장섰다. 뱀은 꼬리 구덩이, 가시가 무성한 덩굴 속,

직임을 잘 수행할 수 없다. 지도자는 무엇보다 강물처럼 민중사와 세계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국제민안(國際民安)을 근간으로 부강한 국가를 지향하며 나아가 민족화해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로드맵을 드러내는 것이다. 유념할 것은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으로 끝나는 것이다. 무리한 욕심은 금물이다. 비전은 크되 실용적이어야 한다. 국정 청사진은 추상적이지 아니하며 선명할수록 좋다. 누가 그러하니까?

마침내는 불 속으로 들어가 죽고 말았다. 이는 무엇을 암시하는가? 꼬리가 자기분수를 모르고 자리를 이탈해 지도자의 자리에 서면 불행해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최순실 게이트를 통하여 국가지도자인 대통령 선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통치권자가 실력이 없고 준비되지 않으면 간신들이나 허접한 아첨마에까지 휘둘릴 수 있다. 반대로 역사를 돌아볼 때 누란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한 사람의 위대한 리더가 구한 사례는 너무도 많다. 국가는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아니다. 아무나 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실현할만한

실력과 준비됨이 없이는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합당한 사람인가? 눈여겨 볼 일이다.

3. 카리스마가 있는 강직한 사람

카리스마(Charisma)는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고 영향을 끼치는 능력을 가리킨다. 카리스마를 뜻하는 영어인 Charisma는 "재능", "신의 축복"을 뜻하는 그리스어의 Kharisma로부터 유래하였다. 카리스마란 말은 사람들의 관심 및 존경, 혹은 반대로 작용할 경우는 혐오감을 쉽게 끌어내는 특성을 가리킨다. 이는 인격이나 외모 혹은 둘 다의 작용으로 인한 것이다.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은 대중들의 마음을 쉽게 빼앗아 자신의 의지대로 잘 이끈다는 뜻이다. 자고로 현대는 치열한 경쟁시대이다. 45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Trump가 외쳤던 America First처럼 각 나라들이 자기 국가의 이익을 최우

이 되더라도 국민과 신뢰 회복부터 해야 한다. 현실에는 밝은 회색과 어두운 회색이 있을 뿐, 흑도 백도 없다. 세계는 다원사회로 가고 있다. 진보나 보수나, 좌나 우나, 낡은 생각이다." 101세 원로로서 일제치하, 6.25사변,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등 역사의 산 증인이신 이 분의 목소리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는 단일민족 단일문화, 단일 언어이기에 흑백논리가 너무 강하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취급하곤 한다. 남북문제도 서러운데 우리 안에서 이념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이 왜 말인가? 국민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나? 따라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아우를 수 있는 통 큰 사람을 뽑아야 한다.

5. 흠결이 크지 않는 도덕적인 사람

훌륭한 지도자는 도덕적 흠결이 적어야 한다. 도덕성이 떨어지면 영(令)이 설 수 없다. 말 발이 딱혀들어 갈 수 없다는 뜻이다. 이를 테면 전과(前科)가 있는 사람이 통치권자가 되면 백성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을까? 후보들은 저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일단 당선 이 급선무이기에 수없이 많은 공약(公約)을 발표한다. 그것들 중에는 자신들도 실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표를 얻기 위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야. 문제는 그렇게 많은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나기 쉽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로 정치인들이 사기

를 치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저들의 말을 잘 새겨들어야 한다. 도덕성은 정직, 성실, 책임감을 기반으로 한다. 가장 큰 도덕론 자는 경천애인(敬天愛人) 사상을 가진 자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이아말로 도덕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맺음 말

대한민국은 올해로 단기 4354년이 된 유구한 역사를 지닌 나라이다. 우리 민족에게는 못지면 어마어마한 힘을 낼 수 있는 DNA가 있다. 그 사례가 1919년 3.1운동과 2002 월드컵과 1989년 IMF 때였다. 이제 우리는 20대 대통령을 잘 선출해야 한다. 그러면 21세기에 조국은 문화강국, 경제 강국에 이어 통일한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문제는 "어떠한 사람을 선출할 것인가?"이다. 자고로 "한 국가의 통치자는 하늘이 점지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그렇다할지라도 현대는 백성들의 손을 통해 선택된다. 각자마다 제 생각이 있기에 이상적인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이에 성균관대 총장을 지낸 고 장을병(張乙炳) 교수의 언급이 이치에 와 닿는다. "투표 시 마음에 드는 (X)을 선택하려면 어렵다. 이에 마음에 아주 안든 (X)부터 한 명씩 제하다 보면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남는다. 그를 고르면 된다"고 했다. 그렇다. 이 그대로 치면 쉬워진다. 누가 더 선명한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수행할 실력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누가 더 도덕적이며 통합적인 리더십으로 온 겨레의 힘을 분출시킬 수 있는가? 누가 더 하늘 높은 줄을 알며 백성의 애환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가? 누가 더 조국과 민족을 세 계로, 미래로 찬란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jrsong007@hanmail.net

국가가 없으면 교회는 설 자리가 잃게 되고 선교도 할 수가 없다. 민족중흥과 국가의 흥망성쇠는 통치권자의 역량에 크게 좌우된다. 우리는 조국의 앞날을 위해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선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스트롱 맨(Strong Man)을 선호하고 있다. 우리 조국에도 각종 단체들의 요구에 강단 있게 대처하면서 범죄자들에게 단호하고 밖으로는 북한이나 4대 열강 등에 끌려가지 않을 강직한 사람이 필요하다.

4. 온 국민을 포용하는 통합적인 사람

연세대 교수로 퇴직한 대한민국 1세대 철학자인 김형석 교수는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로 통합을 얘기했다. "국민 분열이 심각하다. 누가 대통령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⑭ 바울의 제자 디모데



강태광 목사 (월드웨어USA대표)

사도바울의 생애를 살피면 꼭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의 부모, 스승 가말리엘, 바나바 등등이 그런 인물입니다. 바울의 삶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바울이 전도하고 양육하여 동역자로 세웠던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바울 혼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동역자들의 협력과 헌신 까닭에 바울의 사역이 열매 맺습니다. 예컨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나, 에바브라디도, 오네시모 등입니다.

이런 점에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가장 탁월한 제자 디모데도 바울의 제자요 동역자로 나아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요, 에베소 교회 후임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는 그리스어로 티모데오스(Tιμόθεος)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혹은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

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인 듯합니다. 디모데의 일생과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인(헬라인) 아버지에 사이에서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 루스드라(Lystra)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친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는 경건한 신자로

디모데를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잘 가르쳐(딤후3:15)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모범 청년으로 양육했습니다(행16장). 바울의 2차 선교여행에서 만난 디모데는 실라(Silas)와 함께 바울의 동역자로 동행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 그리스, 마케도냐, 로마 등지에서 전도하였고 에베소교회에서는 담임목회자로 사역하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하여 신실한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도움으로 적어도 다섯 교회(데살로니가; 살전3:1-2, 고린도; 고전4:17, 빌립보; 빌2:19-22, 에베소; 딤후1:3, 베뢰아; 행17:14)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을 때 목격했던 것으로 알려

운데 8권의 서두에 바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할례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딤후4:14)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주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고전4:17), "믿음 안에서 참 아들"(딤후1:2),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딤후1:2)로 표현하면서

특별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디모데는 AD 17년경에 출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서 디모데를 만날 때 주후 50년경이었고 바울은 48세, 디모데는 33세였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구약을 배웠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유대인들을 위하여 바울이 할례 받을 것을 권하자 순종하

여 할례를 받습니다. 이미 할례 부담을 없애지는 예루살렘 사도회의 결정이 있었지만 디모데는 할례를 받습니다.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디모데를 높이 평가(Highly value)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역 현장에서 디모데를 중용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동역하며 희로애락을 같이합니다.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 길에도 디모데가 동행합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을 보면 로마 감옥생활에서는 디모데와 함께 지냅니다. 선교여행 중에 개척된 교회에서 디모데활약은 눈부십니다.

천주교 전통은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80세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폭스는 그의 저서 폭스의 순교사(Foxe's Book of Martyrs, 원제는 Actses and Monuments 이지만 순교

사로 더 많이 알려짐)에 따르면 디모데는 주후 97년(디모데 80세) 에베소에서 우상숭배 축제를 준비하는 불신자들에게 헛된 것을 버리라고 설득하다가 몽둥이에 맞고 앓다가 이를 후에 죽습니다.

초대교회는 빛나는 디모데를 보여줍니다. 큰 지도자였던 속사도 교부 이레네우스(Irenaeus)는 디모데서신을 인용하면서 교회 밖의 공격을

방어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도 디모데서신을 수차례 인용하면서 당시 강력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를 반박합니다. 터툴리안도 이단을 반박하면서 디모데서신을 수차례 인용했습니다. 특히 마르시온과 진짜 성경책이 어떤 것인가를 다루는 정경(Canon) 논쟁에서 디모데서신을 부정하는 마르시온을 공격하면서 디모데의 사역과 삶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18살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던 오리겐은 탁월한 영성과 학문으로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오리겐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이유로 '제2의 디모데'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리겐이 디모데를 따랐기 때문에 존경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디모데를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추앙하였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그리고 교회사에서 디모데는 신실하고 헌신된 신앙인입니다. 디모데의 헌신과 열정이 신약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배우고 순종하는 겸손한 제자였습니다. 반면 바울도 디모데를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관계는 동역하기 어렵다고 하는 한국 교회에 큰 도전이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고, 바울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chap1207@hotmail.com

바울과 디모데의 아름다운 동역관계는 한국교회에 큰 도전 아들로 수차례 표현...초대 교회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추앙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바리새인의 외식(눅16:14-15)찬337장

외식주의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바리새인의 죄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 돈을 좋아했습니다(14). 세상에서 돈의 필요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자연스러워도 경건을 이용해 돈벌이에 빠지는 것은 죄입니다. 물질을 일반은총에 속함으로 감사하며 일상생활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그의 뜻을 대적하고 통솔하려 할 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집니다. 둘째, 자기 자랑에 빠졌습

니다. 탐욕은 자기가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 모든 것을 경멸합니다. 셋째, 사람의 칭찬을 좋아합니다. 이 탐욕은 우리가 구할 목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사람의 칭찬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사람의 칭찬에 목을 매는 것은 이미 멸망에 이른 증거입니다. 우리 속에 독버섯처럼 자리 잡은 외식의 죄, 돈, 자랑 그리고 칭찬을 경계합니다.

화 복음으로 완성된 계시(눅16:16-17)찬453장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말씀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첫째,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아담이 받은 한마디 말씀(창2:17)에 모두 포함됐지만 모세 때 와서 613개 조항으로 표현됐고 마침내 두 계명으로 요약됐습니다. 둘째, 선지자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란 율법을 백성의 삶에 적용시키는 일을 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점에서 선지자는 율법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히 율법의 완성이시고 선지자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셋째, 그들은 복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복음 곧, 그리스도 이 둘의 완성자로서 중심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소유하려고 침입(헌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계시를 알고 알게 합시다.

수 복음만이 죄를 이깁니다(눅16:18)찬355장

바리새인의 죄악은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에만 머무는 것은 어떤 문제를 가져옵니까? 첫째, 율법의 의, 인, 신(마23:23)은 믿음과 행함을 바로 세우는 기초이기 때문에 이것 없이 불의, 무자비, 그리고 불신실 위에 서며 곧 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주님은 갑자기 간음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게 하셨습니다. 자기 자랑, 자의 주

장, 사람의 칭찬은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복음은 생명의 원천이지만 탐욕은 모든 죄의 온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상숭배이고(골3:6) 그 마지막은 전인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복음 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길 뿐입니다(요15:5).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를 이깁시다.

목 천당과 지옥의 실상(눅16:24-25)찬222장

성경은 천당과 지옥의 실재성을 뚜렷이 말합니다. 계시록의 새예루살렘, 요한복음 14장의 표현은 천국의 장소성을 강조합니다. 본 비유에도 그 실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첫째, 그곳은 죽은 후에 들어가는 장소임을 묘사합니다. 나사로와 부자가 확실히 증거합니다. 둘째, 천당은 위로받는 곳이고 지옥은 고통 받는 장소임을 강조합니다. 두 곳 모두

왕성한 활동이 일어나는 곳임을 보입니다. 부자는 자의식이 살아있고 그곳의 고통을 아주 싫어했기 때문에 세상 삶을 후회하며 자기 동생들의 장래를 걱정할 정도로 지각활동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셋째, 영원히 서로 단절된 곳입니다. 서로 보기는 보아도 왕래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최소한 공휼마저 거절당한 저주의 구렁텅이가 지옥입니다.

금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눅16:19)찬269장

19절은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를 보여줍니다. 첫째, 세상물질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풀을 입은 것은 상류계층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속주의, 물질주의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경건을 이용한 바리새인의 죄였습니다. 신자는 부하하려는 죄에서 벗어난 자입니다(딤후6:10). 둘째, 향락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는 삶은 물질만능 사상

에 빠진 자가 빠지기 쉬운 자리입니다(눅8:14). 셋째, 그는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를 경외함 곧 복음을 알지 못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신자는 복음의 부요와 기쁨을 알기에 세상의 것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 복음 안에 거하며 그것을 담대히 전합시다.

토 나사로가 천당간 까닭(눅16:20-21)찬228장

나사로가 위로받는 곳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그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난은 외적인 것보다 내적으로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마5:3 "심령의 가난 함"의 그림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처절한 죄인임을 알 때 구원이 시작됩니다. 둘째, 그는 현대 투성이고 문 밖에 버려져 짐승처럼 사는 처지에서도 속으로 애통해 하

나님만을 의지했음은 천당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문밖에 버려진 무시 받는 자리에서 그는 영적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됐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천국의 부요를 누리게 됐습니다(마5:6). 복음은 가난한 심령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합니다. 나사로는 여호와 경외 신앙 곧,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교회음악 이야기(1)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짜르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짜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그의 천재성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익히 잘 아는 사실이다. 35살이라는 짧은 생애동안 600개가 넘는 작곡을 저술했으며(작품의 공식목록 Köchel 626) 그의 모든 작품들의 완성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여기에 그의 음악 제작의 비범한 본질은 그의 깊은 신앙의 삶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었음을 후대 사람들은 평가한다.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그에 대한 일화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만 소개하려고 한다. 그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인 1781년 궁정이나 교회 소속이 아닌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된 일이다. 당시 사회는 봉건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구체제에 맞서서 만민 평등주의와 개인주의적인 정신에 근거한 계몽의 혁명이 진행되고 있던 전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궁정의 군주들이 구시대적 잔재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또 성직자들마저 교권남용과 타락을 접하게 된 그 모습에 한탄을 느끼며 비판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

의 음악세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본질을 놓치지 않았던 위대한 음악가였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그리스도의 공생애에 있어 가장 중심에 두고 있던 하나의 사상을 이렇게 표현한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요 12:28). 이 말씀은 저자 요한이 예수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 그리스도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으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변함없는 한 가지를 초지일관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것이다.

이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궁정과 교회 소속을 떠나 최초의 프리랜서 음악가로 활동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가 재정적으로 빈곤한 어두웠던 말년을 보내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어떤 시기에도 기독교 신앙에 대한 깊은 신앙 고백을 갖고 그의 음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려 했고 바로 그의 작품들이 그것이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고 싶다. 노진준 목사는 "오늘날은 진리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탈 진실 시대가 되어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킴으로 개인화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시대"라고 정의하는 말에 동의가 된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스위스 출신의 개혁 신학자인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가 모차르트를 추앙했다는 사실은 꽤나 잘 알려져 있다. 바르트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며 자유를 느꼈고 모차르트가 누렸던 그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보았다. 그의 고백인 "내가 천국에 가면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나 칼빈, 슈라이어르 마허보다 우선적으로 모차르트를 만나 안부를 묻고 싶다"는 일화는 얼마나 모차르트에 대한 깊은 경의를 표현하고 있는가를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부추기는 요소들 가운데 20세기 초에 나타났던 다다이즘(Dadaism)이라는 하나의 철학적 입장에서 표현된 사조를 생각해 본다. 이것은 난해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현존하는 모든 미적, 사회적 가치를 부인하는 20세기 초반에 유행했던 아방가르드(Avant-garde) 운동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에 의해 원래의 가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모든 그럴듯한 단어들 사실은 아무 의미 없음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칼 바르트의 영향을 받은 20세기 저명한 신학자 한스 쿡(Hans Küng, 1928-2021)도 모차르트를 칭송하며 "그의 음악은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의 음악과 같이 메시지를 담고 있지도,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이나 브루크너(Joseph Anton Bruckner, 1824-1896)의 음악처럼 인생의 고백을 담고 있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 즉 신비어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고 이야기한다.

이 혼란하고, 개인화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매해해하거나 추상적이지 말아야 한다. 즉 복음의 절대성이 분명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사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모짜르트. 그는 짧은 35세의 생을 살며 슬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모든 환경에서 그

이 복음의 확실한 진리를 가슴에 담고 이 복음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기초는 "그분이 오직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원초적 고백이 동기가 되면 바로 나의 삶에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고백이 당연할 것이다.
Soli Deo Gloria!
iyoona@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판매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 펴기

인도

할렐루야!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주심에 감사하며, 인도 선교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 해주심에 큰 감사를 드리며 9월에도 역사하신 성령님의 사역현장을 기도제목과 함께 올리겠습니다.

6차 전도 & 구제

저희 NCTS 신학교는 계속하여 매일 십자가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적으면서 영적 만남을 먹고 있으며, 매주 3회 온라인 강의와 매월 아웃리치 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9월에도 13곳 지역에서 174

여 성전건축과 성전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리아나 주 성전은 마무리 페인팅 공사를 하고 있으며, 렉크나우 성전은 지붕 공사 및 강대상 공사도 하고 있고, 블렌셰드 교회에서는 2층 확장공사를 10월11일부터 한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금 약세 사리 등 헌금을 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모교 동문팀의 기증으로 편지지역 사티쉬 목사님의 교회 근처에 핸드펌프가 설치되어 편리하게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주 21곳 리더목사님들은 목회자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십자가 복음의 말씀과 새 피조물의 말씀, 마라타 운동, 아웃리치 간증을 하여 전도운동을 일으키려 합니다. 신학생들은 매 주일 아웃리치 갔던 곳에 가서 예배를 인도 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박도 있습니다. 블렌셰드 지역과 아그라 지역, 차티스가르주, 아삼주, 마하라쉬트

땅 부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갈랜드 주지역의 특성상 반은 대나무로 반은 벽돌로 지을수 있어 3천만원에 홀, 호스텔, 욕실, 키친 등 완벽히 구비될 수 있다고 하오니 기도해 주십시오.

람뿌르 센터 킹덤 크리스찬 스쿨

하나님의 은혜로 10KW의 태양광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제는 전기 걱정 없이 25여명의 고아들과 신학생들이 상주하며, 주일예배와 크리스찬스쿨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어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이제 막 입학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필요한 것들이 있어 기도요청이 왔습니다.

프린트 인쇄기, 컴퓨터, 컴퓨터책상, 수업교재용 게임교구들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은 유니폼을 살 여유가 없다고 장학금 기부를 요청해왔습니다.

기도하옵기는 내년까지 300여명의 어린이들이 저희 킹덤 크리스찬스쿨에 와서 매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심령에서부터 변화를 받아 가족복음화, 지역복음화, 인도복음화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추가로 이번에 태양광 설치와 크리스찬스쿨을 오픈함에 있어 담당자로 고르브가 맡아서 아주 신실하게 금식하며 쉬지도 않고 일하였습니다. 대학생으로 홈스쿨링이 가능하여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기도제목으로 대학 1년치 교육비랑 교과서 등 합하여 1백3십여만원이 필요하다고 겸손히 장학금 요청을 해왔습니다. 손모아 주십시오.

기도 제목

1. 7차 노방전도 & 구제 동참케 하옵소서
 2. 블렌셰드 교회 확장
 3. 람뿌르스쿨 프린트, 컴퓨터 및 교구, 유니폼
 4. 성경 나누어주기
 5. 고르브 의과 대학생 장학금
- 이 모든 기도제목에 응답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올립니다.

오직주 & 전하라 선교사 가정 올림
jung55353@naver.com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42.가정선교는 가장 시급한 목회현장

2006년 4-5월경 5주 사이에 LA 한인사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은 9건이었으며 이로 인한 한인 사망자 수는 무려 14명에 달했습니다. 9건의 사망사건 중 일가족 살해사건 4건, 배우자 살해 후 자살한 사건이 2건으로 가정불화로 인한 사건이 무려 6건이나 되었습니다.

특히 윤대권씨가 두 자녀를 뱀에 몰아넣고 문을 잠근 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두 자녀를 산 채로 불을 질러 살해한 사건과 김상민씨가 부인과 두 자녀를 총격 살해한 후 자살한 사건은 너무나 큰 충격이

하고 이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 교회와 목회자와 가정사역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음에 대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필자는 이 같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목회자로서 가정사역의 전공자로서 큰 충격을 받고 2007년부터 '가정선교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가정선교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 '가정선교는 십자가 도(道)의 완성' 등의 칼럼을 기독교 신문에 연재하면서 '가정선교(Family Mission)'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하면 신학교에서 '가정과 가정선교'에 대하여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목회자들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이혼과 재혼, 외도바람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학교에서 조직신학과 여러 가지 교리와 이론 등을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신학적인 면에서 불 때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결혼, 이혼, 재혼, 혼외정사, 동성애(게이, 레즈비언), 근친상간, 일부다처제, 알코올, 마약, 도박, 조폭, 가정폭력, 고

가정은 가장 소중한 선교지이며 시급한 목회현장 신학교에서 가정사역 가정선교 커리큘럼 만들어야

였습니다. 인명경시 풍조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LA Weekly는 "슬픔에 휩싸인 커뮤니티 (Community in Pain)"라는 기사로 한인사회의 분위기를 집중조명하기도 했습니다. 특기할 것은 가해자 중 교회에 다녔던 남성이 3명, 아버지학교를 다니며 정신적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남성도 2명이나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같은 가정불화와 가정폭력으로 인한 한인사회의 가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문지상을 통하여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익명의 칼럼리스트가 중앙일보에 "한인교회, 어디 있습니까?"라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세상사람들이 교회가 이 같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라고 있는데, 가정문제의 해결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세기적 사탄의 교회파악 작전이 가정파괴에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 교회는 큰 가정'이므로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최 대 관심사가 가정선교에 있고 가정문제의 시급한 요구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이 가정선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는 등한 밀어어둠하고 가정선교는 등한 시하면서 해외선교에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같이 가정은 가장 소중한 선교지이고 가정선교는 가장 시급한 목회현장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정의 소중함에 관심을 갖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잊고 가정은 의례히 저 절로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가정선교가 가장 시급한 목회현장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가정문제에 대하여 목회자가 속수무책,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왜냐

부간 갈등, 가정폭력, 스와핑, 외도바람, 자살, 기러기 아빠, 청소년 탈선과 노인문제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가정의 문제들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이 반드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파괴되고 있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고 파수하고 영적 결손가정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가정은 가장 소중한 선교지이고 가정선교는 가장 시급한 목회현장임을 깨달아 모든 가정의 문제를 목회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주의 종들을 양성 양육하는 신학교에서 가정과 가정사역, 가정선교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매우 시급한 현실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 714-0691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동부(NY, NJ) 교회</h2>			<h4>뉴욕제시마네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p> <p>Tel. (516)520-2004, www.nygetsemans.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진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침례: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57-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h4>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화,토)</p> <p>Tel. (718)265-2584, www.fkcb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4>뉴욕새벽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일-토)</p> <p>www.pcpcny.org, Tel. (516)387-9840, 9942(EM) 154 Old Wood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새벽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찬양: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h4>베이사이드 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6:30 수요 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특례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5:30</p> <p>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p>	<h4>사랑의동산교회</h4> <p>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p> <p>Tel. 516)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p>	<h4>어린양 개역 교회</h4> <p>담임목사: 유승례 EM 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p> <p>Tel. (845)848-2013</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토) 주일 2부 오전 1:50(토) 주일학교: 오후 1:50(토) 찬양예배: 오후 3:40(토)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h4>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일-토) 오전 6:30(토) 금요침례: 오후 8:30, 목요일 금요침례: 오후 7:30 금요침례 기도회: 매월 목요일 오후 7:30</p> <p>Tel. (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6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하와이 행복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현지인 교회</h4> <p>선교사: 임합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김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편의보단 지구환경 살리기가 우선!”

CNN, 프랑스, 내년 1월부터 과일 채소 플라스틱 포장 금지 추진

프랑스는 다가오는 2022년 1월부터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의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한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방침이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포장 없이 팔아야 하는 약 30개의 과일과

야채 목록을 발표했다. CNN에 따르면 이 목록에는 사과, 바나나, 오렌지 외에도 부추, 등근 토마토 등이 포함되었다(France to ban plastic packaging for fruit and vegetables from January).

교회가 당연한 뉴노멀 시대는 구성원들의 훈련과정에 새로운 독창성과 비범함을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 예배, 젊은 세대, 새로운 세대의 영상과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 수단 활용 등 기존 구조에서 많은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급격히 변하는 시대 속에 많은 리더들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라, 구성원들의 눈치를 살피고 관리하라,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이 역시 카오드 시대라 할 수 있다.



로운 시대에도 이는 당연한 책임과 의무지만 끝이 없고, 새로운 시대라는 핑계로 종종 기피되고 망각되는 의무이기도 하다.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데 에너

잘라진 과일 및 포장필수 과일 야채는 허용 2026년 6월엔 라즈베리 등 베리 류도 불허

를 통해 리더가 과도한 에너지를 한쪽에 쏟지 않고 균형 있는 태도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의 성실성, 지식, 말, 행동에 대한 책임이다. 새

지의 절반 이상을 써야 한다.

두 번째로 자기보다 더 많은 권한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새로운 시대의 결정과 행동에 자기보다 높은 리더십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지

지를 얻어내지 못하면 일반 구성원들의 참여 또한 얻을 수 없다. 리더가 가진 에너지의 4분의 1은 여기에 쏟아야 한다.

마지막 책임은 당연히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이다.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 뒷사람, 그리고 동료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느라 에너지를 쏟고 나면 많은 에너지가 남지 않는다고 여긴다. 디호크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고, 자기보다 상위 리더십에 대해 책임을 다할 수 있으며, 동료들에게까지 철저히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5%의 힘만 구성원에게 쏟아도 이미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역설적인 주장을 펼친다.

혼돈의 시대,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성원들을 일방적으로 관리하려고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기보다 역설적인 에너지의 분배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가는 리더가 돼야 한다.

특/별/기/고

박성규 목사

(해외한인장로회 전 총회장)



지난 10월 10일 오후 3시 나성영락교회가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실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총회의 사명을 감당했던 전 총회장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해외한인장로회는 1976년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를 지낸 고 김계용 목사님과 함께 미국 내에서 시작된 이래 해외 한인교단 중 최대교단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전 세계에 걸쳐 한인 디아스포라로 살면서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세

니다. 나성영락교회는 무엇보다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총회와 노회 그리고 교회가 모두 힘을 합해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총회와 노회는 교회가 분쟁에 휩싸일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사태해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총회가 수습전문위원회를 파견하였으므로 먼저 행정지시를 따르도록 힘을 모아야 하고 이후 헌법이 규정한 평화적인 절차에 따라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긴 법정전쟁을 피

나성영락교회의 교단탈퇴 감행을 바라보며

우며 선교의 사명을 다해 온 교단 산하 교우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해외한인장로회는 장로교단으로서 총회와 노회, 당회로 이루어진 치리회가 교회를 다스리는 대의정치 체제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 그리고 권고와 징계를 규정하고 이끄는 헌법 역시 한국 통합 장로교단의 오랜 역사 속에서 다듬어진 법체계를 받아들여 함께 사용하고 있고, 이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는 우리 헌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교인이라면 누구라도 역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 누구라도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회, 노회 그리고 총회를 거치는 3심제도는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성영락교회 당회가 노회와 총회의 재판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교단탈퇴라는 극심한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모두가 아픈 마음을 갖게 된 것이 현실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한인장로회 헌법 제13장 제86조 3항을 보면 "해외한인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하는 자는 재산의 지분권 및 사용수익권도 가지지 못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7조에 보면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아니한 지교회 재산도 본교단의 재산 관리규정에 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권에 대한 법적싸움에서는 미국 역사상 항상 교단 총회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교단탈퇴로 인한 재산분쟁과 법적싸움은 최하 3년이 가며 엄청난 헌금이 낭비됩니다. 정말 쓸데없는 소모전이 될 따름이며 전도의 길도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랑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성영락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며 선교하는 교회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독감

인류의 역사는 자연재해와의 싸움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전염병과의 싸움이다. 역사적으로 인류가 전염병으로 사망한 예가 종종 있다.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한 흑사병, 수백만 명의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사망한 유럽에서 가져온 천연두 등의 전염병, 1918년 스페인에서 유행해서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 등이다. 이런 대재앙 앞에서 인류는 속수무책이었다. 지금은 의학 발달로 병원체의 전염 경로와 예방법을 잘 알고 있지만 교통수단의 발달과 세계화로 인해서 병원체의 이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빨라서 인간에게 생소한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전 세

계적으로 유행할 수 있다.

-40대 중반의 임 모 씨는 회사원으로서 평소에는 건강한 편이었다. 사흘 전부터 머리가 아프

임 씨를 검진했다. 수축기 혈압이 110mmHg, 이완기 혈압이 80mmHg이고, 맥박은 조금 빠른 편인 분당 95회였다. 체온은 39.1도로 높았다. 각막하 출혈이 조금 보였고 인두가 부어 있었다. 그 외 이학적 검사는 정상이었다. 일단 임 씨는 독감으로 진단하고 타이레놀 등의 해열제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항바이러스제를 시작했다. 또 회복될 때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외출을 삼갈 것을 권했다. -

일반인들은 종종 감기와 독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고 두

조기에 항바이러스제 복용해야

고 전신 근육통을 느꼈고 기침과 콧물이 났다. 처음에는 단순히 감기려니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간밤에는 고열이 나고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일을 갈 수가 없어 출근을 그만두고 병원을 찾아왔다. 임 씨는 지난 이틀 동안 식욕이 없어서 아무 음식도 먹을 수 없었다. 과거에 특별히 앓은 질병은 없었고 일 년에 감기 한두 번 앓는 것 빼고는 건강한 편이었다.

통이나 콧물, 기침 등 상기도 증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 감기는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독감은 글자 그대로 독한 감기인데 일반 감기와는 다른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에 의해 전염된다. 전염 경로는 비슷하지만 증상이 감기보다 더 심해서 고열과 두통, 심한 근육통을 유발하고, 합병증으로 폐렴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독감으로 인한 사망

및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약자와 만성 호흡기 질환이나 신부전증 등을 앓는 사람들은 매년 독감 예방 주사를 맞도록 권하고 있다. 독감 예방 주사는 인플루엔자 A인플루엔자 A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해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백신에 따라서 효과가 차이 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해 유행할 바이러스를 잘 예측하면 백신의 효과가 크고 예측하지 못하면 백신의 효과가 작을 수 있다.

감기 치료는 주로 증상치료로

Midwest University 는 텍사스 주정부 고등교육국의 인준과 연방정부 인가기관, SEVIS I-20 발행을 인준받아 Dallas, Texas 에 항공 조종사 면장과정, 항공 정비사 면장과정, ESL 과정을 오픈 합니다.

Midwest University
College of International Aviation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 Flight
Aviation Management Pilot, Aviation Management Engineer
M.B.A. Aviation Safety Management
Ph.D. in Leadership International Aviation Management Leadership

항공경영학 학위 + FAA Pilot 면장 취득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Professional Pilot Certificate Program(FAA)
조종사 면장과정 10-12개월 소요 (FAA Certificate)

Certificate Program
항공조종 교관, 항공정비 엔지니어 과정

* 미국의 타 항공학과에 비교하여 저렴한 수업료 (SEVIS I-20, J-1 Visa)
* 자가용, 계기, 상업용 FAA 면장까지 10-12개월이면 취득할 수 있으며, 면장 취득 후 교관과정 (2-3개월 취득가능) 취득하여 교관으로 활동하여 1000시간 이상 타임빌딩 가능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Dallas Campus: 4849 Spartan Dr., Denton, TX 76207
Tel : (636)327 - 4645
E-mail : dallas@midwest.edu